

발 간 등 록 번 호

11-B260003-000492-01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종합평가연구

2014. 11.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종합평가 연구

2014. 11.

본 연구보고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 간 등 록 번 호

11-B260003-000492-01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종합평가연구

- ▶ 연구책임자 박환보 (한국교육개발원)
- ▶ 공동연구원 최정운 (한국교육개발원)
김안나 (이화여자대학교)
길혜지 (서울대학교)
- ▶ 연구조원 정연내 (한국교육개발원)
우한솔 (한국교육개발원)

요약문

본 연구는 2009년부터 시작된 대학교 이해증진사업의 운영 현황과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성공사례들의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우선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업 현황 자료, 사업계획서, 수강생 강의만족도 평가 결과, 대학정보공시자료 등의 자료를 토대로 이해증진사업의 성과를 다각도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해증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학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수강생, 책임교수, 강사, 사업관리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에서 성공요인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해증진사업의 직접 수혜자인 수강생들이 이해증진사업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 및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이해증진사업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함으로써 현행 사업의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이해증진사업은 네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 첫째, 고등교육 수준의 개발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지역 간 교육기회 격차 감소에 기여하였다. 대학생들의 개발교육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였지만 이를 강좌에서 다루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지방대학에는 교육기회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 대학생들의 개발교육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었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학생의 인지도 및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국제개발협력 및 ODA에 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으나, 이 과목 수강을 통해 인지 및 이해, 태도 변화, 그리고 작은 실천까지 이어졌다. 셋째,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진로 의식 변화에 기여하였다. 수강생들은 수강 후 자신들의 진로에 있어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몇몇 학생들은 이 분야에 대한 진로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선회하는 등 본 교과목은 학생들이 합리적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넷째,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의 질 제고에 기여하였다. 이 사업의 행·재정적인 지원으로 국제개발협력 이해 과목이 보다 높은 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 대학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교양 강좌에서 다양한 외부 강사를 초빙하고 수강생 일부에게 해외현장활동의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해증진사업의 성공요인을 실제 사례로부터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대학의 책임 교수들은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의 이해라는 기본 목적에 충실하였고, 학생들 또한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둘째, 이러한 강의 목적에 대한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성공사례들은 학생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책임 교수 스스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사, 해외현장활동 등을 활용하여 직업분야에 대한 정보 또한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본 교과목의 수업이나 과제가 해외현장활동과 연계성이 높아 학생들이 해당 국가를 방문 전에 학습할 수 있었으며, KOICA의 현장사무소 연락 등은 책임교수가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외현장활동 참여자는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뽑았으며, 참여 학생들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직접 다음 학기에 발표의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셋째, 이해증진사업의 성공 사례들은 우수한 성과 관리를 통해 다음 학기 혹은 다음 연도에 개설되는 강의를 개선하고, 그 성과를 보고서·사진전·동영상·발표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공 요인을 토대로 이해증진사업을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이해증진사업의 목표를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이를 통한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의 양적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의 목적을 명료화하고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 선정 심사 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구성의 적합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해증진사업으로서 예산 확대 및 전담인력 충원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의 문제는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대학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국제개발협력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책임 교수의 역량에 따라 교육 내용의 질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KOICA ODA교육원과 전문가들이 기본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든 대학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해외현장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한다. 현재의 사업 운영은 프로그램의 결과 평가보다는 계획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이를 조정하고, 확실적인 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보다 교육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사업관리를 위한 책무성 평가에서 탈피하여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의평가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해증진사업의 기본 목적은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 이해지만, 현재의 사업 및 강의 평가 체계는 사업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이해증진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증진 교육의 효과가 해마다 향상될 수 있도록 선순환적인 평가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의 내용	5
3. 연구방법	7
II. 이론적 배경	15
1. 국제개발협력 인식 제고와 관련한 연구	17
2.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연구	18
3. 교육프로그램 평가 모형	19
III.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의 추진 성과	23
1. 개발교육 기회의 확대	25
2. 수강생들이 인식하는 사업의 성과	30
3. 대학 교수들이 인식하는 사업의 성과	45
4. 사업관리자들이 인식하는 사업의 성과	51
5. 종합평가	54
IV.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의 성공사례 특성 분석	59
1. 사업의 목적	61
2. 사업의 내용	65
3. 사업 성과관리	75
4. 논의와 시사점	77

V.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의 개선 방안	81
1. 사업의 목적	85
2. 사업의 내용	91
3. 사업 성과관리	99
VI. 요약 및 결론	123
참 고 문 헌	129
<부록 1>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면담조사 질문지(교수용)	133
<부록 2>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면담조사 질문지(학생용)	136
<부록 3>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면담조사 질문지(강사용)	139



표 목차

<표 I-1> 이해증진 교과목 교육과정 분석틀	10
<표 I-2> 기관별 면담조사 참여자 현황	11
<표 III-1> 참여대학의 국제개발협력 교과목 수강비율 (4년제 일반대학)	29
<표 III-2> 사업 참여 대학 수 및 사업예산 규모 변화	30
<표 IV-1>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성공사례의 특성	79
<표 V-1>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의 개선 방향	83
<표 V-2>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의 영역별 개선 방안	84
<표 V-3> 제안서 심사기준 개선(안)	90
<표 V-4>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종료평가 기준	100
<표 V-5> 현행 사업결과보고서 목차	105
<표 V-6> OECD DAC의 5대 기준을 적용한 종료평가(안)	108
<표 V-7> 사업 결과보고서 목차(안)	110
<표 V-8> 주체별 강의평가 영역(안)	118
<표 V-9> 대학별 자체 강의평가 영역(안)	120

그림목차

[그림 I-1] 연구모형	7
[그림 III-1] 이해증진사업 누적 사업단 수 추이	26
[그림 III-2] 이해증진사업 누적 수강생 수 추이	27
[그림 III-3] 이해증진사업 지역별 사업단 수 추이	27
[그림 III-4] 이해증진사업 지역별 수강생 수 추이	28
[그림 III-5] 국제개발협력 인지도 변화	32
[그림 III-6] 정부의 ODA 공여에 대한 인지도 변화	33
[그림 III-7] 수강 전 가장 기대되는 것	39
[그림 III-8] 국제개발협력 관련 진로에 대한 관심 및 참여의사	4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국제협력단(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은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내국민의 이해 및 참여도 제고,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여 및 위상 강화를 도모하고자, 2009년부터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사업(이하 이해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¹⁾ 이해증진사업은 연간 10억 규모로, 매년 사업 선정 대학에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학부 교양과목 또는 전공과목 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윤종혁 외 2013: 49-50). 그리고 2009년 17개 대학의 사업단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193개 사업단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중복 참여한 대학을 제외하면 모두 70개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였다.²⁾ 이해증진사업의 도입 초기에는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 및 ODA에 대한 이해 증진이 주요한 목적이었으나, 점차 국제개발협력 분야 진로 탐색 및 실무역량 강화, 분야별·지역별·이슈별 연구역량 강화로 사업의 목적이 확대되었다(KOICA 2014). 이에 따라 사업내용도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 개설 외에 해외현장학습 지원이 추가되었다(KOICA 2014).

이해증진사업은 국제개발협력의 인지 제고 및 후속세대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확대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김철희 2011; 신상협 외 2013; 윤종혁 외 2013).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해증진사업의 목적이 모호하고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의 지속 여부에 관해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은 개발협력사업의 성과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개발협력에 관

1) 2009년에는 ‘국제개발협력 인지강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음. ODA 교육원 홈페이지 (<http://idea.koica.go.kr/course/CourseListPartner.do>) 2014년 6월 9일 인출

2) ODA 교육원(n.d.). 내부자료.

한 논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양적 확대 이외에도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 국제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 확보에 집중되었다(권을 외 2006: 38).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ODA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효과성 제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3). 일반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의 목적은 사업의 효과성 개선과 사업에 대한 책무성 제고로 이해된다(OECD 1991). 이해증진사업은 개도국을 직접 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과는 다르지만, 개발인식증진³⁾으로 분류되는 ODA 재원으로서 사업의 효과성과 책무성 제고라는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해증진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요구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대학 내부적으로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학은 ODA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ODA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인 동시에, 관련 연구 활동과 정책개발 및 사업발굴을 하는 지식창출 기관으로 기능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그러나 대학이 지닌 고유한 특성이나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단기적으로 현장 사업을 수행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당초 대학 참여로부터 기대하였던 전문지식 전수, 연구축적, 인재양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정봉근·장은정 2013). 이에 따라 이해증진사업의 참여 동기도 본래의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증진이나 전문 인력 양성보다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실적 쌓기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대학의 특성이나 사업 책임교수의 역량에 따라서 개설된 강좌의 내용이나 강사 구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대학별로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증진사업은 2009년 이후 5년 동안 단 한차례의 평가도 없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나 한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제한적이지만 이해증진사업의 관리 운영 주체인 KOICA ODA 교육원에서는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수강생 대상의 강의평가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설문조사는 크게 강의평가와 교육효과 항목으로 구분되며, 교육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 이해도, 진로 인식, 진로 결정 등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강의평가의 결과가 강좌 간의 차이보다는 주로 학생 간의 차이를 더 많이 반영한다는

3) OECD DAC의 분류에 따르면, Promotion of development awareness 항목으로 99820의 코드를 부여한다.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백순근·신효정 2008), 학생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강의평가 결과를 사업의 성과 평가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이해증진 사업에는 사업주관기관(ODA 교육원), 사업 책임교수, 외부 강사, 수강생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관심과 요구를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 중에서 누구의 관심으로 바라볼 것인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김혜숙·백순근 2009).

최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학생의 관심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증진사업의 질 제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다양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해증진사업의 기획에서 운영과 성과관리로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이해증진사업의 지난 5년간 운영 현황과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우선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업 현황 자료, 사업계획서, 수강생 강의만족도 평가 결과, 대학정보공시자료 등의 자료를 토대로 이해증진사업의 성과를 다각도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해증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학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수강생, 책임교수, 강사, 사업관리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에서 성공요인을 확인하였다. 특히 직접 수혜자인 수강생들에게 이해증진사업이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사업 성과로써 분석하였다. 또한 이해증진사업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함으로써 현행 사업의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2. 연구의 내용

이해증진사업은 그 중요성과 책무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시작된 2009년 이후로 객관적인 사업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해증진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여 향후 이해증진사업의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KOICA ODA 교육원의 내부 자료를 토대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이해증진사업의

양적 성과를 분석하고, 몇 가지 준거를 토대로 개별 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성공사례를 발굴하였다. 그리고 수강생, 책임교수, 강사, 사업 관리자가 인식하는 사업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의 추진 성과

첫째, 이해증진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였다. 향후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해증진사업의 현황과 성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적인 사업 현황과 성과를 사업 현황 자료, 대학정보공시자료 등을 통해 검토하고, ODA 교육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수강생 설문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이 어떠한 인식이나 태도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본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과, 사업을 담당하는 책임 교수, 파견 강사, 그리고 사업 관리자의 인식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해증진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였다.

나.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의 성공사례 특성 분석

둘째, 이해증진사업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몇 가지 준거를 토대로 개별 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성공사례를 발굴하였다. 그리고 성공적인 사업단의 사업목적 설정, 교과목 운영, 해외현장활동 운영, 사업의 성과 관리라는 일련의 과정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한두 가지 개별적인 노력으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과정별로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성공사례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각 대학별 사업 계획서와 성과 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문헌자료와 이해당사자 면담자료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한 특징이 어떠한 의미와 시사점을 가질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다. 사업의 개선 방안 도출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해증진사업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 성공사례의 특징을 비추어 사업의 목적 설정,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해외현장활동 운영, 사업 성과 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요소와 강점에 집중하여 이를 다른 사례들에게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이해증진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KOICA ODA 교육원의 내부 자료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사업 성과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성공사례기법(Success Case Methods; 이하 SCM)을 통하여 이해증진사업의 의도된 효과성을 확인하고, 수강생, 책임교수, 파견강사, 사업관리자 등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여 사업의 긍정적인 요소와 강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의 성과와 성공사례의 특징을 기술하고, 이를 다른 사례들에게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자세한 연구모형은 아래의 [그림 I-1]과 같다.



[그림 I-1] 연구모형

가. 성공사례기법

본 연구에서는 이해증진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위하여 성공사례기법을 활용하였다. 다시 말해서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강의의 개설과 수강 효과에 대하여 약점에 집중하여 문제해결식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요소와 강점에 집중하여 이를 다른 사례들에게까지 확장시킬 수 있도록 제언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SCM은 미국 웨스턴 미시간대학교의 Brinkerhoff 교수에 의하여 개발된 교육훈련 평가기법으로서, 교육훈련이 종료된 후에 우수한 현업적용이나 직무 성과 향상을 보인 소수의 교육훈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그들의 경험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고, 교육 훈련의 전이 및 직무성과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성공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Brinkerhoff 2005). SCM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교육훈련 성과는 크게 두 가지인데, 교육훈련을 통해 배운 내용을 활용하는 사람의 수이며, 더 나아가 배운 것을 활용한 방법의 효과이다. Brinkerhoff(2008)는 교육훈련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직무에 활용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된 학습자는 15%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히고, 우수한 수행자의 성공요인을 탐색하여 교육훈련이 잘 전이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Brinkerhoff(2003)가 제시한 SCM 연구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입증 :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거나 그 가치를 설득하기 위한 성공사례를 만들. 교육 프로그램이 의도한 결과를 얻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효과의 특성과 범위를 증명하게 됨.
-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의 경험에 근거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성과를 산정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
- 현업에서의 성공적 적용 : 현업에서의 성공적인 적용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환경적 요인을 탐색하고,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여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한다.
- 미래의 참가자들에게 동기와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초기 참가자들의 교육을 적용하여 얻은 결과 등을 문서화.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은 이해증진사업의 성공사례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적용되었다. 다시 말해서, 성공사례를 통하여 이해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강의의 의도된 효과성을 확인하고, 수강생, 책임교수, 강사, 사업 관리자 등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경험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가치를 설득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해증진사업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함으로써 현업에서의 성공적 적용 가능성을 가늠하고, 강의 개설 운영자 및 수강생을 포함한 미래의 참여자들에게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SCM을 토대로 하여 먼저 이해증진사업의 첫 번째 성과로서 개발교육 기회의 양적인 확대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성공사례를 설정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에서 강점을 확인하고, 특히 수강생들에게 해당 사업이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사업 성과로 삼고 분석하였다.

나. 연구 대상의 선정

이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대학별 자료(사업 계획서, 해외현장활동 계획서, 강의평가 결과, 사업성과 보고서), KOICA ODA 교육원의 평가자료, 수강생 강의평가 자료 등 사업의 계획부터 종료까지 일련의 자료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2013년도 사업을 심층 분석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 사업을 수행한 43개 대학을 대상으로 KOICA 사업선정심사 결과, KOICA 관리자평가, 수강생 강의평가 결과 우수 대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적으로 9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특히 대학 소재지를 고려하여 수도권 5개교와 비수도권 대학 4개교를 포함하였다. 대학 소재지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 접근성과 개발교육의 기회가 차이난고, 이에 따라 사업의 성과 및 그에 대한 인식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및 지방 대학을 각각 선정하였다. 그리고 공동연구진 및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분석틀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여 8개의 우수 사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자세한 교육과정 분석틀은 아래의 <표 I-1>과 같다.

<표 I -1> 이해증진 교과목 교육과정 분석틀

영역	세부내용
교육과정 구성의 적합성	• 주차별 강의내용은 사업목표 달성(이해증진과 진로탐색)에 적합한가? • 15주의 교육과정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는가? • 수강생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강의의 수준은 적정한가?
교육과정의 특성화	• 사업목표 달성(이해증진과 진로탐색)을 위해 타 대학과 구분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과정이 있는가? (예, 기관견학, 실무자 특강 등) • 대학 및 학과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가? • 대학 및 학과의 전략 및 정책과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는가?
강사구성의 적합성	•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강의내용과 강사진의 전문영역이 일치하는가?
해외현장 활동의 적합성	• 강의내용은 해외현장활동에서 수행할 활동내용과 어느 정도 연계되는가? • 해외현장활동의 활동내용은 사업목표 달성(이해증진과 진로탐색)에 적합한가?

그리고 선정된 성공 사례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이 달성되었고, 어떤 목적은 충족되기 어려웠는지를 분석함과 동시에 사업 설계 당시에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였다. 여기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이해당사자를 수강생, 사업 책임교수, 강사, 사업관리자로 설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여 성공 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향후 더 많은 수강생들이 강의를 통하여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진로 설계의 꿈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확인하였다.

사업 책임교수와 수강생 중에서 면담대상자는 성공사례로 선정된 8개 대학에서 선정하였다. 책임교수는 연구 기간 내에 인터뷰가 어려웠던 3명을 제외한 총 5명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수강생은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도에 이해증진사업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을 모집하였으며, 전체 8개 대학에서 총 28명이 참여하였다. 신청자가 많은 대학의 경우에는 지원한 순서와 수강생의 전공, 해외

현장활동 경험 여부를 고려하여 선발하였고, 일부는 면담참여자의 소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해증진사업이 국내의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전공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었고, 해외현장활동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현장활동에 직접 참여한 학생이 이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KOICA 파견 강사는 2013년 이해증진사업을 통해 최소 2개 대학 이상에 출강한 경험이 있는 KOICA 직원 중에서 직급을 고려하여 4명을 면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KOICA 파견강사의 특장은 이해증진 교과목 구성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며, 학생들에게 풍부한 현장 실무 경험을 전해줄 수도 있고 수강생들과 비슷한 눈높이에서 진로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직원의 근무 경력에 따라 강의의 내용과 질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경력별 파견강사의 면담조사는 이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이해증진사업의 전현직 관리자 2명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 관리자는 KOICA ODA교육원에서 이해증진사업의 행·재정적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대학의 전반적인 사업 시행에 대하여 관리자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 대상자로는 적임자라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면담조사 참여자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I-2>와 같다.

<표 I-2> 기관별 면담조사 참여자 현황

구 분			교수	수강생	직원	계
참여 대학	수도권	A대학	1	4	-	17
		B대학	-	2		
		C대학	1	6		
		D대학	-	3		
	지방	E대학	1	4	-	16
		F대학	-	2		
		G대학	1	7		
		H대학	1	-		
KOICA	파견강사		-	-	4	4
	사업 관리자		-	-	2	2
계			5	28	6	39

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

이 연구는 KOICA ODA교육원의 내부자료에 대한 문헌 분석과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다. KOICA ODA교육원의 내부자료는 이해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각종 공문서(사업계획, 사업선정 및 심사 결과, 종료평가 및 회계정산 결과)와 대학별 보고자료(사업 계획서, 해외현장활동 계획서, 강의평가 결과, 사업성과 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문헌분석은 사업의 계획부터 종료까지 이해증진사업 수행의 전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2013년도를 중심으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2014년 자료와 2013년 이전의 자료들도 참고하였다. 그리고 각종 문헌자료로부터 교육과정 구성, 해외현장활동 운영, 성과관리가 우수한 대학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KOICA ODA 교육원의 사업 현황 자료와 대학별 정보를 토대로 이해증진사업의 추진 성과를 개발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사업 참여 대학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는 각 대학이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게시한 2013년도 대학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하였다.⁴⁾ 대학정보공시 자료는 국내 소재 모든 대학들의 현황을 ‘학생, 교육 및 연구 성과, 대학재정 및 교육비, 교육여건, 대학운영’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대학의 세부 현황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박환보 2011).

초점집단별 면담은 2014년 7월 말부터 시작하여 9월 초까지 진행되었으며, 집단별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면담조사 내용은 면담참여자의 동의를 얻어서 녹음을 하였으며, 이후 전사한 내용을 분석 자료로 삼았다. 면담조사는 사업 관리자와 파견강사를 차례로 인터뷰한 후 최종적으로 수강생과 사업 책임 교수를 인터뷰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한 것은 KOICA가 생각하는 사업의 목적 및 성과를 대학 교수 및 수강생들로부터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수강생 집단에 대한 면담은 각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대학별로 각각 진행하였다. 또한 면담참여자 중 대학의 책임교수는 이 사업에 참여하여 각 대학에서 교과목의 운영을 담당하는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권위자 및 전문가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업의 목적, 운영, 성과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물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참고하였다.

면담 자료의 분석과 해석은 자료 수집과정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분석 내용을

4) 대학알리미 (<http://academyinfo.go.kr/>)



토대로 2차 자료 수집과 분석 및 해석 등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였다. 우선 면담자료를 읽으면서 이해증진사업의 성과와 관련된 주제 등을 확인하는 개방적 코딩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주제들을 목록으로 만들고 공동연구진 회의를 통해서 중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모든 수집된 자료에 이 주제 목록을 적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연구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제목록을 수정해 나가는 선택적 코딩을 수행하였다. 또한 NVIVO 10을 사용하여 질적 자료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II

이론적 배경

1. 국제개발협력 인식 제고와 관련한 연구
2.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연구
3. 교육프로그램 평가 모형



II. 이론적 배경

연구 설계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우선 이해증진사업의 목적과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 인식 제고와 관련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개념과 모형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여 이해증진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1. 국제개발협력 인식 제고와 관련한 연구

이해증진사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는 2012년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한 ‘2012년도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성과사례집’이 유일하다(KOICA ODA 교육원 2012).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사업 사례를 평면적으로 제시할 뿐, 이해증진사업의 성과를 정의하고 분석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국제개발협력 인식 제고와 관련한 연구들은 국내 ODA 재원의 확대와 더불어 ODA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의 여론조사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한 국가의 개발협력정책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조에 대한 여론의 인지 정도와 지지가 중요하다라는 인식에 기반을 둔다(김은미 외 2011: 2). 한국의 ODA에 대한 여론조사는 1999년 한국국제협력단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2002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실시된 바 있다(김은미 외 2011: 115). 그리고 외교통상부는 2002년에 경제단체 임원, 언론사 간부, 대학교, 연구원, 국회의원·보좌관,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김영환 외 2012: 425).

그러나 ODA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여론조사를 추진한 것은 2005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정홍보처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추진한 ‘ODA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이다(권율 외 2011: 27). 이후에도 외교통상부 주도로 ODA에 대한 다양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주로 홍보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1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및 국제 비교’ 연구를 수행하여, ODA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설계·실시하였다(권율 외 2011).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에서도 ODA에 대한 국민인지 제고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과 선진공여국의 사례 검토를 통해서 향후 발전적인 국민인지 제고 전략을 마련하고자 했다(김은미 외 2011). 또한 김영환 외(2012)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사들의 공적개발원조와 개발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인식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와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개인들의 ODA 인식제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연구

국내에서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선진공여국의 개발전문가 육성정책과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최민경 2008). 또한 직업능력개발원은 2010년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현황과 실태, 그리고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인력 양성 방안을 제안하였다(김철희 외 2010). 구체적으로 정부부처의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학위과정 확대 및 비정규과정, 단기특별 과정 개설 확대, 노동시장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김철희 외 2010). 또한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관리자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교육훈련과정의 체계화를 시도하기도 했다(김철희 2010).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철희(2011)는 본격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 김철희(2011)는 국제개발협력 인력양성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발협력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정부부처, 전담기관, 국제대학원, 개발NGO, 기업, 민간컨설팅, 연구소·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을 활용하는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김철희 2011: 79-88). 그리고 대학의 경우에는 국제대학원이 개발협력 인력양성 및 사업 운영의 핵심 주도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학부 수준에서는 이해증진사업 확대 및 연계를 통한 저변 확대를 강조하였다(김철희 2011: 84). 이외에도 석사학위 논문 수준에서 보건의료 ODA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방안이나 ODA에서 교사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처럼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김주연 2012; 이미지 2013).

이처럼 국제개발협력 인력 양성과 관련한 연구들은 대학 수준에서의 인력 양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개발협력 인력 양성 정책이나 체제 구축 등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개별 대학 수준에서의 인력 양성 방안이나 성과, 이러한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성과,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진로 선택 여부 등과 같이 미시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이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개인들의 진로 인식이나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교육프로그램 평가 모형

이해증진사업은 대학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 및 참여도 제고를 목적으로 이와 관련된 학부 교양과목 또는 전공과목 개설을 지원하는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은 ODA의 재원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 및 책무성 제고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명확한 준거를 토대로 한 평가 또한 요구된다. 하지만, 직접 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과는 다르므로 OECD DAC에서 권장하는 5대 평가기준(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해증진사업은 일반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평가 기준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교사평가, 강의평가, 학교평가, 정책평가 등 학생의 성취도 평가 외에 다양

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김혜숙·백순근 2009: 344). 김정성 외(2008)에 따르면, 교육 프로그램 평가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성과를 감정하고, 그 프로그램의 목표, 활동, 산출물,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즉, 프로그램 평가는 평가자, 행정가, 또는 실무자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는 일종의 관리 도구로서 각종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결과에 대한 가치나 유용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프로그램 평가의 종류는 평가의 내용이나 영역 등 연구자의 관심 항목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정연순 외 2008: 8), 이해증진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적에 맞는 평가모형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여기서 사업의 목적이란 기관 차원에서의 미래지향적이고 다소 추상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공학교육인증기준에서 정의하는 ‘프로그램교육목표(Program Educational Objectives)’와 같이 특정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달성하게 될 구체적인 성과(또는 자질 및 능력)를 의미한다(김명량 외 2008).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서 비교적 많이 사용해 온 평가모형에는 목표달성모형(goal attainment model), 의사결정모형(decision-oriented model), 판단중심모형(judgment-oriented evaluation model)이 있다(김정성 외 2008). 김정성 외(2008: 6-13)에 따르면, 목표달성모형은 교육목표 및 교육을 위한 제도적, 행정적 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모형이며, 판단중심모형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닌 평가자가 평가의 대상과 그 내용을 판단하는 활동으로 본다. 의사결정모형은 평가가 의사결정을 돕는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간주하며 상황, 투입, 과정, 산출을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Stufflebeam의 CIPP 모형이 대표적이다(김정성 외 2008: 9).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의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연구는 유아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반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이해증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 평가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주희 외(200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프로그램 실시 전 후로 학생들의 인성검사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김성훈 외(2009)의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와 교육 본연의 가치를 바탕으로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메타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였으며, ‘목적부합성, 실천적합성, 정보정확성, 보고충실성, 교육본위성’을 준거로 구성하였다. 최종철과 김영화(2007)는 성인학습자의 관점을 반영



한 사이버대학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준거를 연구하였으며, 선행연구 및 학습자의 요구조사를 토대로 문항을 개발하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마치고 요인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유한구 외(1994)의 교육대학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연구에서는 교육의 목표를 설정, 프로그램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 교사로서 직무수행, 그리고 학생들의 행동변화까지를 평가의 틀로 삼았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평가는 주로 학습 만족도나 성취도에 관심을 두고 프로그램의 투입이 산출을 얼마나 가져왔는지에 대한 접근을 취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매커니즘을 통하여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거나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혹은 프로그램의 계획 단계에서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나타난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전에 개발된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종결된 후 1회 총괄 평가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및 이에 얽힌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역동적이고 질적인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프로그램 자체의 고유하고 질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성과 창출에 미치는 개별적·조직적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즉, 평균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양적 수치 위주로 교육 프로그램 성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성공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향후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해증진사업은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인 동시에,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교육 행위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과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의 실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와 강좌를 수강하는 학습자의 인식을 함께 고려하고, 프로그램 교육 전과 후의 학습자 이해도 및 참여도를 비교하여, 프로그램의 순수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역동 속에서 프로그램의 고유하고 질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성과 창출에 미치는 개별적·조직적 영향을 분석하는 성공사례분석기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III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의 추진 성과

- 1. 개발교육 기회의 확대
- 2. 수강생들이 인식하는 사업의 성과
- 3. 대학 교수들이 인식하는 사업의 성과
- 4. 사업관리자들이 인식하는 사업의 성과
- 5. 종합평가



III.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의 추진 성과

1. 개발교육 기회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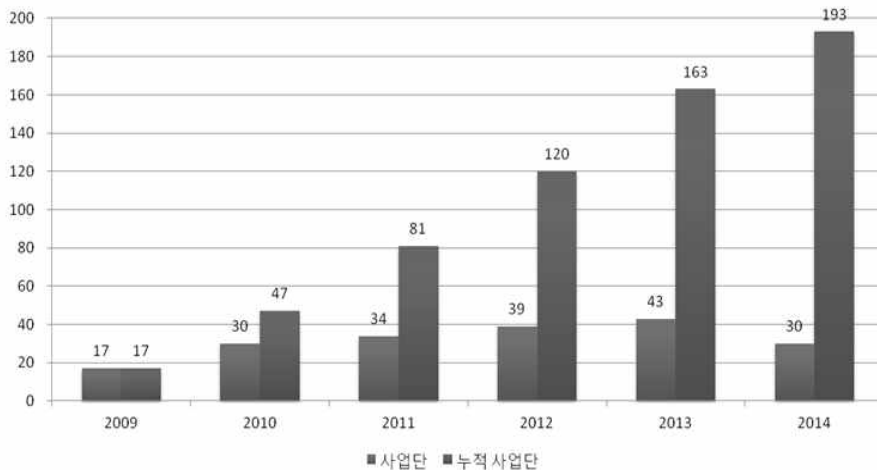
최근 ODA 재원의 확대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ODA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발교육이 요구되고 있으나 그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의 개발교육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국제이해교육을 시작으로 다문화교육, 환경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등으로 세분화되어 진행되고 있다(김영환 외 2012). 또한 국제개발협력 이슈를 다루는 개발교육의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교부, KOICA, 개발NGO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국민 인지 제고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이태주, 김다원 2010).

그러나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개발교육 강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KOICA ODA 교육원은 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실무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발 NGO들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교육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신상협 외 201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개발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대상만 특정했을 뿐 내용상의 차별성이 없다. 또한 대부분 수도권에서 단기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 소재 대학의 학생들의 교육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대학 내에서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이 일부 국제대학원의 전공과목으로 개설되기 때문에, 학부 수준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KOICA는 2009년부터 대학 내에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 개설을 지원하여, 대학생들에게 개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국제개발협력 인지강화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대학교

지원 사업은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14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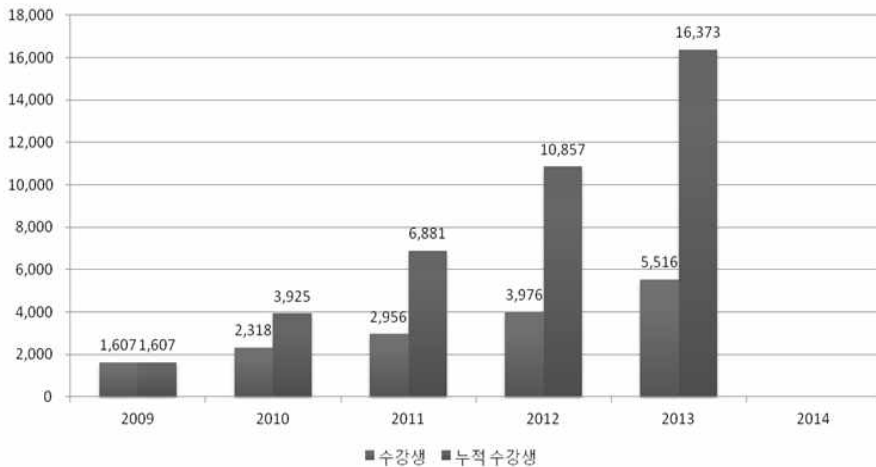
이해증진사업은 지난 5년 동안 대학생 대상의 개발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였다. [그림 Ⅲ-1]과 [그림 Ⅲ-2]를 살펴보면, KOICA의 지원을 통해서 2009년 17개 대학의 사업단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193개 사업단⁵⁾이 국제개발협력 관련 강의를 개설하였고, 2013년 기준으로 총 16,373명의 대학생이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교과목을 수강하였다.



[그림 Ⅲ-1] 이해증진사업 누적 사업단 수 추이

출처: KOICA ODA 교육원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5) 다년간 사업에 참여한 대학을 제외하면 총 70개 대학이 지난 5년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국제개발협력 관련 강의를 개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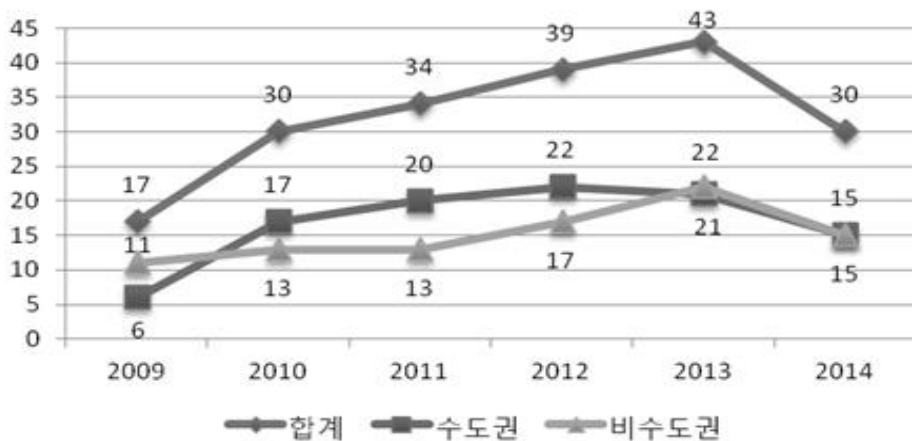


[그림 Ⅲ-2] 이해증진사업 누적 수강생 수 추이

출처: KOICA ODA 교육원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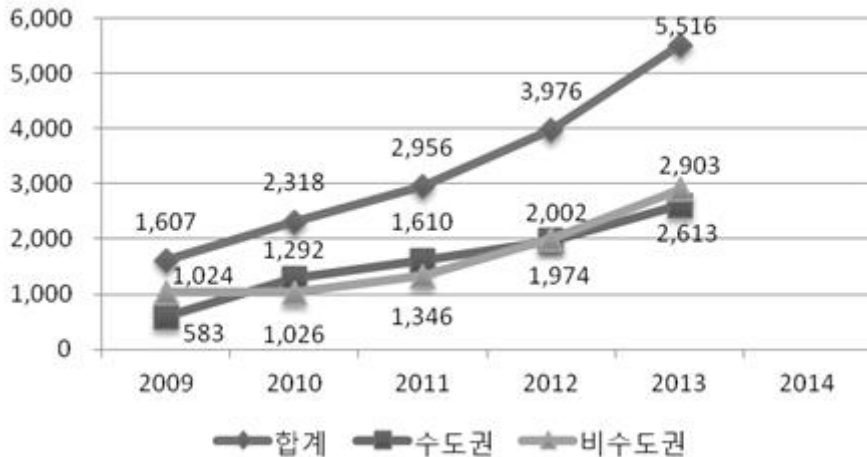
주: 2014년은 사업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강생 수는 현재까지 집계되지 않음.

특히 이해증진사업은 수도권 중심의 개발교육 기회를 지방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소재 지역별로 이해증진사업에 참여한 사업단과 수강생의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방소재 대학의 참여와 수강생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한 현황은 아래의 [그림 Ⅲ-3]과 [그림 Ⅲ-4]로 제시하였다.



[그림 Ⅲ-3] 이해증진사업 지역별 사업단 수 추이

출처: KOICA ODA 교육원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그림 III-4] 이해증진사업 지역별 수강생 수 추이

출처: KOICA ODA 교육원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주: 2014년 총 수강생 수는 현재까지 집계되지 않음.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수도권(서울경기)의 사업단 수가 비수도권에 비해 많아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간 개발교육의 격차가 우려되었다. 그러나 KOICA ODA 교육원이 지역별 균형지원을 위해서 비수도권 대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에 따라 이러한 지역별 개발교육 격차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 결과, 2013년에는 비수도권 대학의 사업단 수와 이해증진 교과목의 수강생 수가 모두 수도권 대학보다 많아졌다. 그리고 2014년 사업부터는 개발교육의 지역 간 격차 해소라는 공공성 측면이 고려되어, 수도권에서 15개 대학이 선정되고 비수도권에서 15개 대학이 참여하여 지방에서도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있다.

이와 같이 이해증진사업을 통해 대학에서의 개발교육 기회가 확대되었으나, 국내의 전체 대학 수에 비해 참여 대학 수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2014년까지 총 193개 사업단이 참여하였지만, 동일한 대학이 여러 해에 걸쳐 지원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총 70개 대학에서만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었고, 이는 2013년 기준 전체 고등교육기관 433개교의 약 16%에 불과하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의 유형별로 보면 일반 4년제 대학이 주를 이루며, 기능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의 고



등교육기관은 지난 6년 동안 9개 사업단만이 참여하였고, 이는 전체 193개 사업단의 약 5%에 불과하다. 또한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통해 개설된 국제개발협력 강의를 수강한 학생의 비율은 해당 대학의 전체 재학생에 비해 낮기 때문에, 다년간 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개발교육 수요도 여전히 존재한다. 자세한 참여대학의 국제개발협력 교과목 수강비율은 아래의 <표 Ⅲ-1>로 제시하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은 사업단과 수강생을 지원한 2013년에도 수도권 4년제 일반대학의 수강비율은 약 0.43%에 불과했고 비수도권의 경우도 약 0.3%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현황은 국내 대학생들에게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 수강의 기회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Ⅲ-1> 참여대학의 국제개발협력 교과목 수강비율 (4년제 일반대학)

연도	수도권			비수도권		
	수강생	재학생	수강비율	수강생	재학생	수강비율
2009	459명	525,075명	0.09%	976명	833,639명	0.12%
2010	1,251명	537,730명	0.23%	986명	854,137명	0.12%
2011	1,610명	552,714명	0.29%	1,300명	884,344명	0.15%
2012	1,974명	568,591명	0.35%	2,002명	915,640명	0.22%
2013	2,494명	575,130명	0.43%	2,775명	930,315명	0.30%

출처: KOICA ODA 교육원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이처럼 대학 내에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 개설 지원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4년에는 전체 사업 예산규모가 9억 원으로 축소되고 이해증진사업의 참여 대학도 30개로 감소하였다. <표 Ⅲ-2>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이 시작된 2009년 이래로 2013년까지는 매년 참여 대학과 수강생 수가 증가하였고 사업비도 대체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사업 참여 대학 수와 전체 지원예산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축소되었다.

<표 III-2> 사업 참여 대학 수 및 사업예산 규모 변화

(단위: 원)

연도	대학	증감	수강생	증감	사업예산	증감
2009	17개	-	1,607명	-	327,658,000원	-
2010	30개	176.5%	2,318명	144.2%	1,012,767,000원	309.1%
2011	34개	113.3%	2,956명	127.5%	874,748,400원	86.4%
2012	39개	114.7%	3,296명	111.5%	1,152,808,550원	131.8%
2013	43개	110.3%	5,516명	167.4%	1,312,439,000원	113.8%
2014	30개	69.8%	-	-	900,000,000원	68.6%

출처: KOICA ODA 교육원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주: 이해증진사업이 2009년 2학기에 시작되어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1년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도별 사업예산 규모의 편차가 나타남.

이와 같이 이해증진사업은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개발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 간의 개발교육 격차 완화에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참여 대학의 수가 제한적이고, 전체 대학생 수에 비해 수강생의 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기회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수강생들이 인식하는 사업의 성과

앞 장의 현황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이해증진사업은 대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이해하고 세계시민의식 함양의 기초가 되는 개발교육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 기회의 제공이 그대로 참여자의 인식이나 태도의 변화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해증진사업을 통해 개설된 강의를 직접 수강한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강생들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수강 전과 비교했을 때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유일하게 수강 전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2013년 1학기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2013년도에 관련 강의를 수강한 학생 5,516명 중에서 7개 대학 28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2013년 1학기에 이해증진사업의 지원으로 개설된 교과목의 수강생 설문조사는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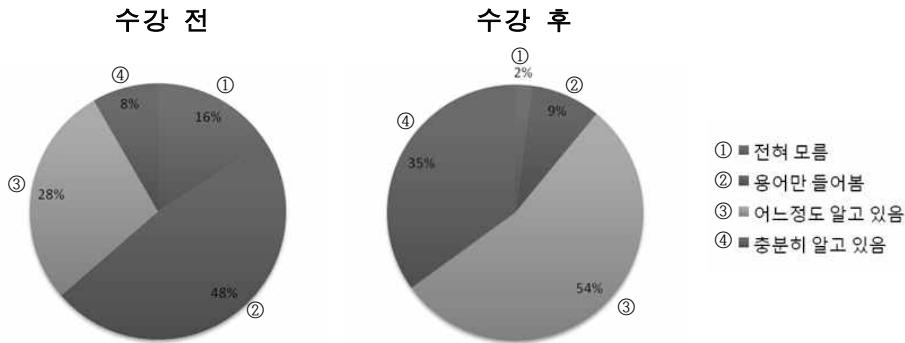
제개발협력에 관한 이해도와 관점 등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검사 형태로 설계되었고 강의 전후로 2회 실시하였다. 강의 전 설문조사는 국제개발협력 이해도와 수강 동기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총 43개 대학의 2,760명 중에 41개 대학 2,326명이 응답하였다(응답률 84.2%). 그리고 강의 후 설문 중 국제개발협력의 이해도 문항은 강의 전 설문과 동일하였고, 추가적으로 수강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36개 대학의 수강생 1,049명이 참여하였다(응답률 38.0%).

한편, 2학기 설문은 강의 후 1회 실시되었으며 37개 대학 1,611명의 수강생이 참여하였다. 문항은 교육과정에 관한 강의 평가와 수강 만족도, 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설문에는 학생들의 수강 신청 동기에 관한 내용이 없고, 수강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 및 관점의 변화를 비교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하의 성과 분석은 2013년도 1학기 설문조사 결과만을 활용하였다.

가. 대학생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이해도 증진

ODA 교육원은 매학기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에 관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주로 강의 운영이나 강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초점을 맞추었고, 설문조사가 필수 사항도 아니었기 때문에 수강생들의 이해도 변화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2013년 1학기에는 강의 실시 전후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 및 진로에 관한 인식 변화를 조사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해증진사업의 성과를 분석해볼 수 있다. 다만,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수강 전후의 설문응답 인원이 상이하고 응답률도 다르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설문조사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인지도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에 대해서 강의 전에는 학생들의 47.6%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만 들어보았고, 15.9%에 이르는 학생들이 국제협력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강의 수강 후에는 34.9%의 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 충분히 안다고 응답했으며, 약 54%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강의 전후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수강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증진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한 인지도 변화는 아래의 [그림 III-5]에서 제시하였다.



자료: ODA 교육원(2013)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주: * 2013년 1학기 기준 총 수강인원 2,76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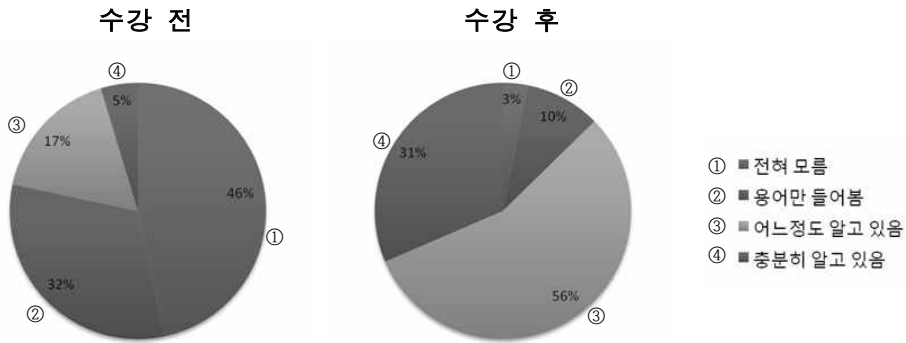
* 수강 전 설문응답인원 2,326명(응답률 84.2%), 수강 후 설문응답인원 1,049명(응답률 38.0%)

* 수강 전후 설문응답인원은 동일하지 않음

[그림 III-5] 국제개발협력 인지도 변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해외원조(공적개발원조, ODA)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으며 관련 진로에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학생이 수강 전 설문조사에서는 4.6%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46.6%의 학생들은 ODA에 관해 전혀 모른다고 응답해 ODA에 관한 대학생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해증진사업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한 후에는, 설문에 응답한 수강생 중에 31.4%가 ODA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55.8%의 수강생들은 그 필요성과 역할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강의 전 설문조사에서는 약 22%의 수강생들이 정부의 ODA 공여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수강 후에는 87%의 학생들이 이에 대해서 인지하였다. 즉, 수강 후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의 ODA 인지도가 평균적으로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수강생들의 ODA에 대한 인지도는 일반 국민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권율외(2011: 112)가 실시한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51%가 정부의 ODA 공여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강생들의 ODA에 대한 인지도 평균인 87%에 비해서 약 36%가 낮은 수치이다. 이처럼 이해증진사업은 대학생의 ODA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자료: ODA 교육원(2013)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주: * 2013년 1학기 기준 총 수강인원 2,760명

* 수강 전 설문응답인원 2,326명(응답률 84.2%), 수강 후 설문응답인원 1,049명(응답률 38.0%)

* 수강 전후 설문응답인원은 동일하지 않음

[그림 III-6] 정부의 ODA 공여에 대한 인지도 변화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해증진사업이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과 ODA에 대한 이해도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수강생들은 국제개발협력 이해도 증진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대했고, 강의 수강을 통해서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었는가? 수강생들은 이해증진사업의 성과를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수강생들과의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1) “이 수업 말고는 개발협력을 알 수 있는 수업이 전혀 없어요.”

이해증진사업 교과목 수강생들을 면담한 결과, 학생들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매우 중요한 성과로 인식했다. 특히 수강생들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부 교육과정 내에서 배우기 어렵다고 말한다. 국제개발협력의 특정 분야 및 지역에 관한 강의는 일부 대학에서 사회학, 인문학, 지역학, 그리고 외국어 관련 학과의 전공강좌로 개설되거나, 심화된 내용으로 대학원의 수준에서 개설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제대학원 교육과

정도 정치학, 경제학 등이 주류를 이루며 국제개발협력은 극히 일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수업 말고는 개발협력을 알 수 있는 수업이.. 정치외교학 쪽에서는 전혀 없고, 국제관계학 같은 수업에서 언급을 해주시긴 하는데, (한 학기 동안) 한 시간 정도? 한 시간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학 커리큘럼 자체가 정치 쪽으로 많이 몰려있어요. NGO 수업도 들어봤는데 사회학으로 접근을 하지 개발협력 쪽으로 는 전혀 관련이 없더라고요. (E대학 학생)

이처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개론 및 교양 강좌는 이해증진사업 교과목이 개설되기 전까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도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대학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학습 기회가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

2) “하고 싶어도, 지방에서는 없어서 못하거든요.”

특히 지방 소재 대학의 수강생들은 교과목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수업이 아니면 국제개발협력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증진사업을 통해 자신들이 최소한의 국제개발협력이라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또 지방에는 이런 쪽으로 공부하는 스터디나 이런 게 더 없거든요. 서울 쪽에는 많은데, 지방에서 이쪽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몇 명 알고는 있는데, 하고 싶어도, 지방에서는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좋아질 것 같다고. (G대학 학생)

국내의 개발교육 기회는 ODA 교육원의 강좌와 일부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특강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기회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소재 대학생의 경우에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주제의 특강뿐만 아니라 관련 행사 및 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따라서 지방 소재 대학생들에게는 이해증진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개설된 국제개발협력 관련 강의



가 이 분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이다.

3) “ODA나 KOICA에 대해 아예 몰랐어요.”

앞에서 살펴본 설문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생 중에는 이해증진사업 교과목을 수강하기 전까지 국제개발협력 분야와 ODA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학생들도 많았다. 이러한 학생들은 이 수업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고, 수업을 통해 이 분야의 인지와 더불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 강의는 저도 처음에는 ODA도 전혀 모르고 들어갔는데, 아무 생각도 없었던 대학생들한테 강좌 개설해서 좀 알게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B대학 학생)

ODA나 KOICA에 대해 아예 몰랐어요. 제가 해외 나가본 적도 없지만 못사는 나라 사람들의 사진들을 많이 보면서 저렇게 못사는구나. ODA나 KOICA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런 분야도 있고 여기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많구나 생각했어요. (E대학 학생)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에 관해 사전 지식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도 체계적인 학습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가 단편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해증진사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보다 정확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데 기여하였다.

배우니까, 관심 있는 학생한테는 배우다보니까, 받아들이는 게,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그 이전에는 뭘 내용인지 모르고 지나갔던 부분도 알게 되고, 사실 저는 코이카가 하는 일이란 수출입(은행)이 하는 일이 뭐가 다른지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코이카는 무상원조고 수출입은행은 유상으로 원조를 한다. 이렇게 좀 몰랐던 부분들을 채워나가다 보니 좀 더 흥미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A대학 학생)

또한 교과목의 수업을 통해서 국제개발협력과 ODA에 대한 ‘인지’를 넘어서, 그것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국제개발협력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긍정적

인 방향으로 변화한 학생들도 있었다.

ODA 왜 해야 하는지 알게 되서 좋았어요. 학교 오기 전에 회사를 좀 다녔는데요. 제 월급에서 세금이 나갔는데 세금을 내도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왜 굳이 해외까지 가서 봉사를 해야 하는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수업 듣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이런 데 써야 되는구나. (E대학 학생)

이런 사업을 좀 더 활성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네이버에 봤는데, 정부에서 ODA 사업을 몇 배 확장한다는 기사에, 네이버 댓글들을 보니까 다들 우리나라나 챙겨주지, 이런 여론이 많았는데, 저도 이거 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이걸 함으로써,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해외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진 않아도, 이 수업 자체로, 이러한 인식을 알리는 거니까. (G대학 학생)

수강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수강생들이 경험한 태도의 변화에서도 드러났다. 수강생들 중에는 수업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한 대학생은 전 세계의 다양한 재난사고나 개발도상국들의 뉴스 기사를 보더라도 그들의 어려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업으로 배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알고 보니까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는 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E대학 학생)

이해증진사업의 목적은 대학생들에게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국제개발협력과 ODA에 대해서 알리고, 대학생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개발협력정책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조에 대한 여론의 인지 정도와 지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김은미 외 2011). 그리고 수강생들의 면담조사를 통해서, 이해증진사업이 ODA의 필요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지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강사님들”

이해증진사업은 외부 강사의 강사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이 특강 형태로 강의를 구성한다. 외부 강사의 특강 형태로 진행되는 강의는 교과목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다소 산만해질 위험성도 있다. 그러나 수강생들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동일한 주제로 다양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와서 좋았어요. NGO, 정부, 종교단체 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같은 사실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았어요. (A대학 학생)

또한 평소에 쉽게 만날 수 없는 현장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현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수강신청 단계에서 강의계획서를 볼 때에도 매력을 느꼈고, 특정 분야 혹은 현장의 전문가가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특강을 진행하기 때문에 흥미롭고 지루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강사님들. KOICA분들.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는 것도 저희는 새로운 경험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B대학 학생)

직접 (현장을) 갔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때까지 제가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 분을 통해가지고 실제 상황이나 어떻게 대처하셨는가에 대해 들어 좋았던 것 같아요. (G대학 학생)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특성상 현장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이론적인 지식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 대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 현장의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지식을 배우고 싶더라도, 실제로 이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강사님들”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수강생들에게는 현장 전문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수업이 갖는 장점 중 하나이다. 또한 현장의 전문가들도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매우 드물다. 이처럼 이해증진사업은 대학생과 국제개발협력의 전문가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

으며, 수강생들은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5) ODA자격증 취득, SNS홍보대사와 후원의 시작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수강생 중에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교과목을 수강 한 이후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G대학에서는 해외현장활동을 같이 다녀온 팀원들끼리 자율적으로 스터디모임을 구성하여, 함께 ODA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1기 저희 팀(조별 프로젝트팀)이 있어요. 약간 국제개발협력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원래 동아리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스터디로 바뀌었고. (해외현장활동) 갔다 왔던 애들이 같이 스터디를 해가지고 ODA 전문가 자격증도 다 땀단 말이에요. (G대학 학생)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상 속에서 소액 후원이나 자원봉사 등에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 TV에서 저개발국가 어린이 후원에 관한 광고를 접한 후에 수강생 스스로가 작은 후원을 시작하는 등의 변화도 있었다. 또한, 금전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SNS 홍보대사와 같이 대학생 수준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을 애정을 갖고 맡기도 했다.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몰랐으니까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막연하게 TV에 UNICEF 광고 보면 아프리카 어린이들 불쌍하다 이런 생각 정도였는데, 도와주는 현황이랑 도와주는 방법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도울 수 있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았어요. (B대학 학생)

저는 UNICEF라던가 UNHCR, 난민기구 같은 곳을 후원하기 시작했구요. (E대학 학생)

국제 빈민 아이들에게 조금 더 해주고 싶고. 꼭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분야 WFP의 SNS 홍보대사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프리카 아이들이나 더 안 된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아 부었으면 했어요. (F대학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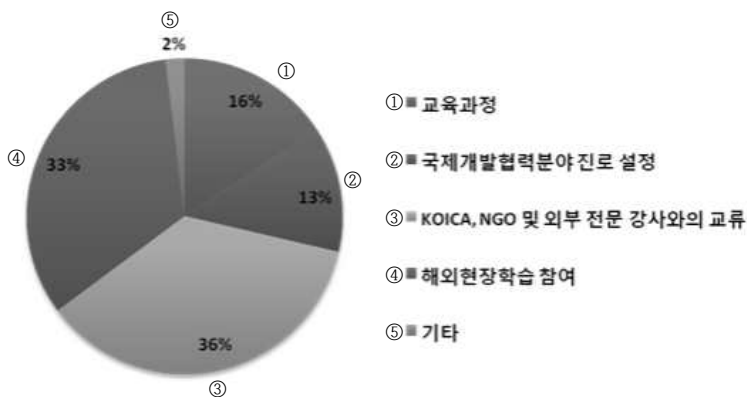


이처럼 이해증진사업을 통해 개설된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은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인지’ 하고, 이론과 실제에 대해 보다 ‘이해’ 했을 뿐만 아니라, 태도나 행동의 ‘변화’ 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 대학생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진로 의식 변화

이해증진사업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넘어서, 대학생들에게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대학생의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진로 의식 변화라는 측면에서 이해증진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3년 1학기 수강 전 설문에 응답한 2,326명 중에 36.4%에 해당하는 846명의 학생들이 수업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으로 ‘KOICA, NGO 및 외부 전문 강사와의 교류’를 꼽았고, 12.7%의 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분야 진로 설정’을 구체적인 목표로 두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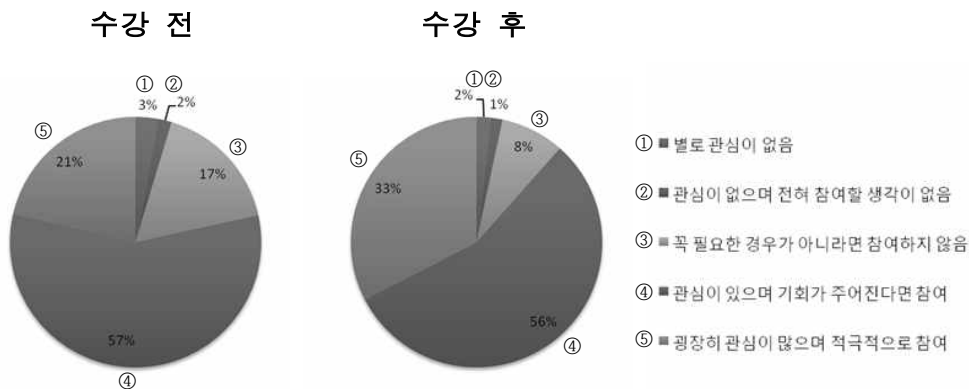
자료: ODA 교육원(2013)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주: * 2013년 1학기 기준 총 수강인원 2,760명

* 수강 전 설문응답인원 2,326명(응답률 84.2%), 수강 후 설문응답인원 1,049명(응답률 38.0%)

[그림 Ⅲ-7] 수강 전 가장 기대되는 것

그리고 ‘귀하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진로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수업을 수강하기 전에는 21.3%의 학생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수강 후 32.6%의 학생이 적극적 참여 의지를 보였다. 반면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16.8%에서 8.1%로 줄어들었다.



자료: ODA 교육원(2013)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주: * 2013년 1학기 기준 총 수강인원 2,760명
 * 수강 전 설문응답인원 2,326명(응답률 84.2%), 수강 후 설문응답인원 1,049명(응답률 38.0%)
 * 수강 전후 설문응답인원은 동일하지 않음

[그림 III-8] 국제개발협력 관련 진로에 대한 관심 및 참여의사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수강생들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진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식이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진로 의식의 변화는 수강생 면담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수강생들의 국제개발협력 진로 의식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로, 국제개발협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업을 갖고자 하는 학생들은 본 수업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보다 구체화했다. 두 번째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전공자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위치에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업무를 맡거나 연계된 전공을 하여 기여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막연한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깨닫고 진로를 선화한 경우이다. 진로 의



식 변화와 관한 구체적인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부서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교과목을 수강하기 전부터 이 분야로 진로를 염두에 두고 있던 학생들은 수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이 되었다고 말한다.

원래 국제기구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사실 국제기구로 가고 싶다 한다면 붕 떠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좀 더 좁혀줄 수 있는 수업을 기대하고 수강 했던 것 같아요. (E대학 학생)

저도 막연히 직업을 코이카, KDI, EDCF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수업을 듣고 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부서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B대학 학생)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수강생들은 강의 내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수업 후에도 강사들에게 진로에 관해 많은 질문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업 책임교수와 강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

진로 쪽에도 도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코이카, 저희 때는 코이카 교수님, 팀장, 그분이 오셨는데, 이메일도 보여주시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얘기 해주시고, 진로 쪽에도 도움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해외 봉사프로그램도 소개시켜주셔서, 정보를 좀 많이 알고. (G대학 학생)

최근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국제기구, 원조전담기관, 개발NGO 등 이 분야의 구체적인 진로를 고민하는 대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직업 정보나 직무 특성 등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일반 기업체들과 같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설명회 등의 개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실무

자로부터 해당 분야의 직업세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따라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던 수강생들에게 이해증진사업의 교과목은 이 분야 진출을 위한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존재이다.

2) “언젠가는 하고 싶은 일”

수강생 중에 다수는 국제개발협력 전공자나 전문가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본인이 속한 위치에서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예를 들면, 회사원이 되더라도 국제 및 개발협력에 관한 업무가 생기면, 남들보다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진로가 아니라 인생의 한 번 쯤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느 분야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마음도 훨씬 편해지고, ‘그럼 내가 좋아하는 길을 찾고 나중에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남아 있어요. …(중략)… 저는 수업을 듣고 확실히 바뀌었어요. 내가 이쪽은 분야를 더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마음도 크고,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커요. (C대학 학생)

수강생들은 졸업 후에 당장 국제개발협력 현장에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위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ODA 자격증의 취득은 이 분야의 진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학생으로서 조금 더 공부하기 위한 일이다.

진로보다는 약간 그게 있어요. 국제개발현장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원래 동아리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스터디로 바뀌었고, 그게 갔다 왔던 학생들 대부분이, 아까 ODA 자격증해서 생각했는데, ODA 자격증 다 뺐단 말이에요. 갔다 와서 스터디를 통해서, 자격증도 뺐고, 진로보다는 언젠간 나중엔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모든 팀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스터디를 했고, 자격증도 다 뺐고, 언젠가는 하고 싶은 일. 이렇게 남는 것 같아요, 진로보다는. (G대학 학생)



이해증진사업의 목적은 더 많은 대학생들이 이 분야의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수강생 전원이 국제개발협력 분야 전문가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도 또 다른 문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신의 삶 속에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분야를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언젠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라는 수강생의 한 마디는 진로 의식 변화와 관련하여 이해증진사업의 성과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3) “싫고 좋고를 떠나서 쉬운 길이 아니다”

세 번째로 일부 학생들은 국제 및 개발협력 분야, 개발도상국 봉사 등에 대한 막연한 환상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현장 실무자로부터 개발도상국들의 열악한 환경 및 시설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게 될 때에 이 분야의 진로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인식했다.

UN, World bank 같은 국제기구는 멋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무하시는 강사 분들이 강의 오셔서 씻지도 못하면서 힘들게 일하는 것이라고 말해주셔서... 저는 못하겠다고. ...(중략)... 글로벌협력 전공하고 싶은 후배가 있는데 이 수업 들어보라고 했어요. 저처럼 관심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너도 들어보고 진짜로 취업하고 싶은지. (D대학 학생)

이처럼 국제개발협력 관련 강의에서는 현실에 토대를 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부 수강생들에게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직업세계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진로를 선회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담당과목 교수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 수준의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때에, 학생들은 진로에 대해 다시 숙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개발협력 분야는 어느 분야에서도 연결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자기의 학부 전공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대학원 전공을 선택해서 개발협력이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수업시간에 많이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다음 스텝을 대학원을 가는

게 좋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E대학 학생)

수업 듣는 과정에서 이 길은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싫고, 좋고를 떠나서 쉬운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대학원까지 나와야 길이 열린다고 너무 많이들은 것 같아요. (A대학 학생)

이해증진사업을 통해 개설된 교과목의 수강생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학생들부터 환상을 갖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이 분야의 진로를 깊이 고민하는 학생들까지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직업세계에 관한 동일한 정보를 접한다고 하더라도, 수강생들이 해당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직업세계에 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진로선택도 달라진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진로 의식 변화와 관련하여, 강의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대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직업세계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돕는 일이다. 왜냐하면 직업세계에 관한 인식이 합리적인 직업선택과 그에 적합한 취업준비활동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신선미 외 2008).

직업세계에 관한 인식은 직업세계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과 판단으로 정의내릴 수 있으며, 이는 직업세계를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관찰하거나 경험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윤명희 외 2010). 따라서 직업세계에 관한 인식은 현실을 반영하지만 현실과 같지는 않으며, 개인이 습득한 정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에 따라 직업세계에 관한 인식도 달라진다(신선미 외 2008). 그러므로 자신의 직업을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시기인 대학생들에게 직업세계에 관한 정확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자신의 관심이나 적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채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대학 재학 중에도 진로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윤명희 외 2010; 조발그니 2012). 게다가 대학 내에서도 취업지원기구 설치를 통해서 직업정보제공, 취업 상담, 취업 특강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세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신선미 외 2008).

이러한 한계는 특히 국제개발협력 분야와 같이 새로운 직업세계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몇 해 전부터 소위 ‘한비야 키즈’ 나 ‘반기문 키즈’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진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갖는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은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경우도 많다.⁶⁾ 또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직업세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해증진사업은 학부생들에게 국제개발협력 분야라는 직업세계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직업세계에 관한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진로 의식 변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수강생들은 국제개발협력 교과목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강생들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갖거나 태도가 변화하였으며, 강의는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세계에 관한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해증진사업은 지방대학 및 학부수준에서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교육기회 제공,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인지’, ‘이해’, ‘태도 변화’, ‘실천’ 등의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수강생들은 KOICA 파견강사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의 특강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현장에 대해서도 간접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또한 진로 의식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진로와 국제개발협력 분야와의 연계를 생각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강 전부터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보다 구체화하거나, 막연한 환상과 기대를 버리고 직업세계에 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

3. 대학 교수들이 인식하는 사업의 성과

이 장에서는 이해증진사업을 대학교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 책임 교수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들이 이해증진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업 책임 교수들은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수요충족’ 과 ‘KOICA의 재정 지원을 통한 교과목의 질 제고’ 를 가장 중요한 성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6)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41952901> 2014년 9월 5일 인출.

가.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수요 충족

우선, 사업 참여 교수들은 이해증진 교과목 개설을 통해서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과 강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면담 결과에 따르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수업시간을 못 받았는데 아침 8시에 받았거든요. 수요일 아침 8시 수업을 받았는데 우리는 7시 40분쯤 가요. 그러면 애들이 그때부터 와요...(중략)...근데 첫 날 100명이 온거예요. 그거는 한비야 선생님 보러온 애들이 많았고요. 근데 재밌는거는 그 100명이 다 나가지 않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그 처음 해부터 많이 들었어요. (C대학 교수)

또한 대학생들은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이나 해외봉사활동과 같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막연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차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제개발협력 그 다음에 또 국제무대에서의 봉사.. 이런 거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가 되게 높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무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외국에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깐 학생들이 되게 관심이 많다....(중략)...이거를 개설을 하면 3, 4초 만에 신청이 끝이 난다고 해요. 많은 학생이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거지요. (G대학 교수)

대학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있는 경우에 학생들은 관련 정보를 접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열려있다. 그러나 대학 차원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수의 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떠한 방법으로 동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보조차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책임교수들은 이해증진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최소한이나마 이러한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개발이라는 게 결국은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더라도 마음은 누구를 돕고 하여튼 봉사하고 이런 게 아주 자기 삶의 원칙 속에 녹아지잖아요. ... (중략) ... 그게 NGO가 됐든 현장이 됐든 해외사업이 됐든 그 속에 가능성을 처음으로 모색해 보고, 왜냐면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쪽에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 기능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A대학 교수)

즉, 각 대학의 사업 책임 교수들은 수강 신청 시작과 동시에 정원이 가득 차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이 과목에 대학생들의 수요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또한 본 교과목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충족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인식했다.

나. KOICA의 재정지원을 통한 교과목의 질 제고

다음으로, 사업 책임 교수들은 KOICA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한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학문적 특성 상 현장이나 다양한 주체와 분야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지만, 재정이 부족한 대학 입장에서는 전담 강사료 외에 별도의 교과목 운영비를 편성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해증진사업은 ‘현장전문가의 특강’ 과 ‘해외현장활동’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 참여 교수들은 다양한 강사를 초빙하고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결국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1) “분야의 전문가가 특강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면담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사업을 담당하는 대학의 교수들은 KOICA의 재정적 지원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살아있는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사실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KOICA가 보유한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다양한 강사진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다양한 분야와 관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평가한다.

이해증진사업이 굉장히 좋았던 것은 외부특강..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는 재원을 좀 주셔가지고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중략)*... 사회적 기업 제안서를 제가 쓰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특강을 해서 그 쪽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해주시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중략)*... KOICA하고 이걸 같이 하니까 사회적 기업 전문가는 KOICA에서 소개해준 분이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목해서 모셔달라고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KOICA에서 갖고 있는 전문가 풀에서 저희가 모실 수 있게 해주시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학생들도 되게 좋아해요. *(E대학 교수)*

그리고 사업 책임 교수들 중에는 다년간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있지만, 일부 교수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다양한 현장 경험을 보유한 외부 강사들은 개발협력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현장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여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였다.

해외에서 ... 대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 현장감 있는 그런 수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이론적인 추상적이고 조금 이상적인 내용을 다루는 데 비해서, 그런 *(강사)*분들은 실제로 현장감 있는 또 해외에서 사업소장도 하고 했던 분들이니까 학생들이 관심이 있지요. *(G대학 교수)*

이처럼 사업수행 대학의 책임 교수들은 수업을 통해 수강생들이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분야와 관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특히 실제 개발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문가의 특강으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2) “해외현장활동 가는 게 이 수업의 큰 메리트죠.”

이해증진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책임교수들은 한 학기 동안 수강생들이 수업을 통해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하계·동계 방학 기간을 이용해 해외현장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강의에서 다루거나 수강생들이 조별 활동을 통해 학습했던 내용과 해외현장활동 간의 연계성이 높은 경우에 개발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인식했다.

현장을 수업하고 연계해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 (중략) ... 애들이 갔다 와서 후기를 발표한 걸 들으면 수업시간에 배웠던 거가 현장에서 보여 지는 거가 굉장히 학생들한테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대요. 선생님이 얘기하던 빈곤이 이런 거구나, 길이 이렇게 엉망이구나, 약간 자원봉사 같은 활동을 같이 하거든요. 이 지원을 받아서 그냥 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쪽 학생들과 *interaction*하고 같이 자원봉사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오게 해요. 짧은 기간이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 같아요. (E대학 교수)

이와 함께 해외현장활동은 향후 국제개발협력 관련 분야로의 진로를 선택하게 될 학생들이 미리 현장을 경험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역할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분야로 진출하려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좋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기들의 정신무장, 봉사정신을 먼저 심어줘야 할 거 같아. 취업과 직업을 개척하는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 체험을 해보니깐 돈은 안 되거든. 그래서 학생들이 이상하고 현실하고 괴리를 느끼고 우리가 봉사활동을 가면, 그렇지만 대학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하계, 동계 방학을 이용해서 해외 경험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현실과 이론의 괴리는 있을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는 될 수 있겠다. (G대학 교수)

이처럼 이해증진사업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해외현장활동은 이론 위주의 수업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수강생들에게 개발도상국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KOICA 지원이 없으면 힘들죠.”

이해증진사업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어가면서, KOICA 내부에서는 교과목 개설 지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다년간 연속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경우에는 KOICA의 지원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교과목을 개설하고, 신규 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 책임 교수들은 KOICA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개별 대학의 방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과 같이 외부 전문가 특강이나 해외현장활동까지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이 과목이 아니더라도 하고는 있어. 우리도 지원 안 해줘도 해. 이런 과목이 많아요.. 요거는 학교의 방침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겠지. 방침이 국제 분야에 관심 많은 학교라면 (KOICA의 지원과) 관계없이 할 수 있겠죠. 근데 돈이 들고, 외국에 애들을 보내고, 그런 거까지 할 수 있겠나 싶어. 그런 거는 일반 사립대학은 재정이 많이 열악하잖아요. KOICA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 것 같애. 우리도 외국에 보내지는 못해 일반과목에서. 봉사활동까지는 못하거든요. 지원이 없으면 힘들지. (G대학 교수)

외부에서 모시고 오는 건 다양한 지식, 살아있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 할라 그러면 시간 당 보통 교수님들이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힘들지. 요런 형태로 할라 그러면 지원을 받아야 돼. (G대학 교수)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의 개설이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장 전문가의 특강’과 ‘해외현장활동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열악한 국내 대학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한 강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특강비를 편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학생 1명당 최소 1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해외현장활동 지원을 대학에 요구하기도 어렵다. 한 대학 교수는 KOICA의 재정 지원에서 탈락한 후에도 대학 자체적으로 교과목 개설을 했지만, 해외현장활동에 대한 수강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가 매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다음 학기의 강의 개설이 불투명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이해증진사업 대학에 선정되지 못하였지만 그대로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매력적인 거는 몇 명 안 되지만 해외봉사. 그게 없으니까. 운영을 하는데



계속 고민을... 그래도 마지막에 꽃은 그래도 몇 명이지만 해외봉사를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머리를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우리 지역 NGO에서 봉사활동 가는 데와 컨택을 해서 학생들을 자력으로 4명인가 5명을 보냈죠. 그런데 걱정입니다. 이거를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H대학 교수)

뿐만 아니라, 최근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대학의 재정 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으며, 대학 내에서도 재정 감축을 위해서 교양강좌를 폐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사업 책임 교수들은 KOICA의 이해증진사업이 없다면, 대학 내에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양강좌 개설 자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 대학들이 또 이거 관련 없어요. 교양과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정이 자꾸 안 좋아 지니까 일단 예산 아끼는 것 중 하나가 대다수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학교는 지금 교양과목을 줄이겠다고 하거든요. (G대학 교수)

이처럼 사업 책임 교수들은 KOICA의 이해증진사업이 없다면 대학 내에 국제개발협력 관련 강좌 개설이 어렵고, 설령 개별 교수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과목을 개설한다고 할지라도 특정 분야 전문가의 특강과 해외 현장활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현행 방식을 지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해증진사업은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 개설뿐만 아니라 교과목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4. 사업관리자들이 인식하는 사업의 성과

앞에서는 이해증진사업의 직접수혜자인 수강생, 그리고 교과목 개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책임교수가 인식하는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였다. 이 장에서는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KOICA 파견 강사들은 이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면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 및 참여 증진’과 ‘KOICA에 대한 관심 증대’를 사업의 주요 성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가. 대학생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 및 참여 증진

우선 KOICA 파견 강사들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 및 참여 증진’을 가장 중요한 사업의 성과로 인식하였다. 이들은 대학생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강의 내용을 구성하고, 특히 자신들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 중심의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을 유발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수강생들이 수업 중에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과, 수업 종료 후에도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저희가 국가 예산을 쓰면서 하는 사업이고 목적은 수강생들의 이해증진인데, 수강생들이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 느끼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담당자)

사례 중심으로 많이 했고, KOICA 입사 후 25년차인데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 사무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현지 근무 여건도 설명했어요.... 일부 관심가지는 학생들이 메일로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피드백도 되었습니다. (KOICA 파견 강사 C)

또한 KOICA 파견 강사들은 이 사업이 수강생들에게 국제개발협력 분야 학습 및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흥미를 유발하여 실질적으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KOICA 파견 강사들은 학생들이 교과 내용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강사와 연락을 취하며 진로 상담을 해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심화 학습하거나 관련 분야로 인턴십에 참여하고 취업 등의 진로를 선택한 사례들도 있었다.

(강의) 하고나서 애들이 구체적으로 메일이 와서 묻고 구체적으로 진로상담하고, 강의 듣고 인턴 들어오거나 해외파견 나가는 애들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좋죠. 반응이 있는 애들. 반응 있고 실행하는 애들, 공부하는 애들 보면 좋다.... 뭐 대학원 이런데 왔다가 강의 들었던 학생들을 만나면 좋죠. (KOICA 파견강사 K)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KOICA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증진사업으로 개설된 교과목은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현황 등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 이외에 빈곤, 재난, 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다룬다. 따라서 수강생들이 일견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다소 무겁고 진지한 주제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 강사는 이해증진사업이 이러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계시민의식 함양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중요한 성과로 인식하였다.

우리나라 정규교육 시스템에서는 세계시민교육 같은 게 잘 되어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세계시민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그 이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걸 한번쯤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금 현재 세계시민교육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충분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KOICA 파견 강사 A)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표준화된 교육과정이나 교육 기회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증진사업이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KOICA에 대한 관심 증대

다음으로, KOICA 파견 강사들은 국제개발협력 교과목의 수강, KOICA 현장사무소 방문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대학 원조 전담기관인 KOICA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KOICA 해외봉사단, 인턴십, 취업 등 관련 진로를 선택한 사례들을 사업의 성과로 인식하였다. 강사들과의 면담에 따르면,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려는 학생들은 대부분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수업 후에도 KOICA 파견 강사와 개인적인 연락을 취하면서 자신의 꿈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그 후에도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등 이메일도 많이 받게 되구요, 하나의 사례로는 K대의 한 학생은 수업 중 눈빛이 반짝반짝했는데 진짜 나

중에 KOICA 인턴십으로 오더라고요. 진짜로 자기 길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KOICA 파견강사 A)

특히 이론 위주의 교과 내용을 보완하는 실질적인 현장 체험을 통해 진로를 구체화한 학생들 중 일부는 KOICA 해외사무소 인턴으로 개발도상국 현장에 파견되어 국제개발협력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있었다.

D대학교 학생들하고 해외현장활동을 다녀왔었거든요. 해외현장활동 갔다 온 D대학교 학생들이 6명이 있었는데 이중 2명이 르완다 인턴, 에티오피아 인턴으로 나가 제세요. (KOICA 파견 강사)

이와 같이 이해증진사업에 참여한 KOICA 파견 강사들은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 및 KOICA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이 분야의 후속세대 양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이해증진사업의 중요한 성과로 인식하였다.

5. 종합평가

이 장에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업 현황 자료, 사업계획서, 수강생 강의 만족도 평가 결과, 면담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해증진사업의 성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종합해 볼 때, 이해증진사업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1. 고등교육 수준에서 개발교육 기회 확대 및 지역 간 격차 감소

첫째, 고등교육 수준에서 개발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지역 간 격차 감소에 기여하였다. ODA 재원의 확대와 더불어 ODA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개발교육 기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지만, 대학 내에서 국제개발협



력 관련 교과목은 주로 일부 대학원이나 학과의 전공으로 개설하기 때문에, 일반 학부생들이 이러한 강의를 수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ODA 교육원과 일부 민간단체들이 비정규강좌 형태로 개발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1회성 특강이나 단기 강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강좌가 평일 낮 시간대에 수도권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 소재 대학생들은 이러한 개발교육 기회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해증진사업은 학부생들에게 개발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수도권에 편중된 개발교육 접근 기회를 지방에도 보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2.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학생의 인지도 및 이해도 증진

둘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학생의 인지도 및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였다. 이해증진사업은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 및 ODA에 대한 이해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수강생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 변화는 가장 중요한 평가 준거이다. 수강생들의 강의 전후 설문조사와 면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해증진사업이 표방하는 이해증진이라는 목표 달성에 있어서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강생들의 ODA에 대한 인지도가 일반 국민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으며, 이러한 성취가 강의 수강에 따른 변화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책임교수와 사업관리자들도 수강생들의 태도나 행동 변화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러한 성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해증진사업은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진로 의식 변화

셋째,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진로 의식 변화에 기여하였다. 대학생들의 진로 의식 변화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직업세계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국제개발

협력 분야 관련 직업에 관한 인식이 모호하고, 직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도 부족하다. 또한 일부의 성공사례 등 제한적인 정보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직업세계에 관한 부정확하고 편향된 인식을 갖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해증진사업은 학부생들에게 국제개발협력 분야라는 직업세계에 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찰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거의 유일한 강의이다. 특히 해외현장활동이나 KOICA 방문 등 직업현장을 관찰하는 직접적인 방법과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경험을 듣는 간접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직업에 관해 비교적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현실에 토대를 둔 구체적인 정보를 접했기 때문에, 수강생들도 국제개발협력 분야 직업세계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거나 혹은 선회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해증진사업은 대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직업세계에 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4.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의 질 제고

넷째,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의 질 제고에 기여하였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학문적 특성 상 현장이나 다양한 주체와 분야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 구조가 열악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전담 강사로 외에 별도의 교과목 운영비를 편성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 고등교육의 국제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해외봉사활동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특정한 교양과목의 수강생만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외부 강사의 초빙이 주로 개인적인 네트워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 별로 강사 역량의 편차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해증진사업은 ‘현장전문가의 특강’과 ‘해외현장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과목의 질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학별 특성화된 교육과정이나 강의자료, 해외현장활동 사례집 등 교과목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은 초중등학교의 개발교육과 일반인 대상 교육 등 향후 개발교육의 전반적인 질 제고를 위한 토대로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대학교 이해증진사업은 대학 내에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 개설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교과목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IV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의 성공사례 특성 분석

- 1. 사업의 목적
- 2. 사업의 내용
- 3. 사업 성과관리
- 4. 논의와 시사점



IV.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의 성공사례 특성 분석

이해증진사업은 대학생들에게 개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 인지도 및 이해도를 증진하고 진로 의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교과목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이러한 기여는 양적으로 드러난 성과를 비롯해 본 교과목의 수강생, 책임교수, 강사, 그리고 사업관리자의 인식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몇몇 대학들이 이해증진사업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업단이 교과목 운영상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공사례들의 특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해증진사업을 실제로 운영한 대학 중에서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사업의 목적’, ‘사업의 내용’, ‘사업의 성과관리’ 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성공요인을 탐색하였다.

1. 사업의 목적

이해증진사업의 성공사례로 선정된 대학들은 수강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지도 강화 및 이해도 증진을 주요한 강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수강생들과 분명하게 공유하였다. 이를 위해서 강의 목표를 강의계획서에 명확하게 제시하였고, 수강생 또한 목표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 수업을 개설한 목적 중의 하나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제고에 있다고 들었어요. 이 수업은 저한테는 상당부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 (중략)... 관심 있었던 학생들에게는 길을 제시해줄 수 있었던 것 같고,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촉구하면서 어느 정도 인식을 제고해줄 수 있었고, 저도 듣기 전에 모르는 게 되게 많았었는데. (A대학 학생)

그리고 강의의 성격을 교양과목으로서 규정하고, 다양한 수준의 수강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앞 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강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사전 이해도 수준에는 큰 편차가 있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처음 접한 학생들은 낯선 용어들과 많은 약어들 때문에 처음부터 학습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거리감을 느낄 개연성도 높다. 따라서 이해증진사업에 참여할 수강생의 대다수가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임을 고려하여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관심을 갖고 관련 지식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 전혀 난이도가 어렵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 정말 쉽게. 교수님이 기본 개념만 설명하려고 하셨던 것 같고, 초보자에게도 충분히 쉽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A대학 학생)

A대학 교수는 수강생들이 국제개발협력과 ODA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강의의 목표로 설정하였고, 학생들도 이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권장도서를 활용하였다.

애들 눈높이에는 ‘국제개발협력의 이해’를 개론 시간에 소화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다 포함하고, 가독성이 매우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국제)개발협력의 첫 걸음’을 쓰죠. ‘국제개발협력(의 이해)’은 보조 교재로. (A대학 교수)

‘국제개발협력의 첫걸음’과 ‘국제개발협력의 이해’는 KOICA가 발간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개론서이며, ODA 교육원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제공 및 이해를 위해서 해당 서적을 교재로 권장하고 있다. 권장도서의 활용 정도와 방식은 사업 책임교수의 전문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수강생들에게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의 습득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강생 중에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더



라도 오히려 왜곡되고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C대학에서는 우선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 전달에 집중하고, 이를 토대로 수강생들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학부 수업은 전혀 모른다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학부에는 아직 없는 전공이라 많이 모를 것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 했구요.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애네들이 인터넷에서 배운다던가, NGO에서 배우더라도 짧게 1-2시간 특강 듣고 오기 때문에 지식이 굉장히 얇고, 잘못된 지식을 사실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사례 하나를 알아서 전부가 엉망인 것처럼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서요. 일단은, 잘 모른다는 것을 다 가정하고, 알고 있는 지식도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초급으로 시작을 했어요. (C대학 교수)

그리고 성공 사례 대학은 수강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지’ 수준을 넘어서 ‘이해’ 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문제가 아니라, 수강생들의 관점이나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게 이해를 높이는 것이라면 지식의 축적보다는 애들로 하여금 어떤 시각을 갖느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를 과목을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넘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A대학 교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일부 대학들은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주제를 교육과정에 포함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C대학은 국제개발협력을 구호(救護) 문제와 연계하는 것을 또 다른 강의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의 일반적인 주제, 이슈, 지역, 분야에 대해 구호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 재난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자연재해가 더 많이 일어나고, 인적 재난, 복합재난도 많기 때문에 재난의 문제, 기후 변화의 문제가 엮여져서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개도국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적에는 이 (구호) 문제를 개발협력 쪽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UN시스템 하에서도 구호 쪽하고

개발협력 쪽이 나누어져 있는데, 연결을 현장에서도 해야 하고, 연구도 그렇게 해야 하고, 교육도 그렇게 해야. (C대학 교수)

또한 특수목적대학인 E대학은 대학의 특성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전자, 공학, 기술의 분야와 함께 개발협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E대학 강좌의 특색화는 다양한 전공을 지닌 학생들이 수강하는 일반대학에서는 어려우나, 집단이 비교적 동질성을 지니는 특수목적대학에서 가능한 운영 사례로 볼 수 있다.

우리 학교로 한정해서 보면. 우리 학교는 공학 중심, 직업훈련교사 양성에 특화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기본적인 background가 좋은 학생들이 있죠. ...(중략)... 교과목 구성도 적정기술이라던가, NGO와 봉사단을 소개하더라도 직업훈련분야에 관련된 활동을 소개하는 쪽으로 하는 거죠. (E대학 교수)

이처럼 성공사례 대학들은 국제개발협력 교과목 내에서 특정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사업 책임교수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대학원 진학이 필요하며, 반드시 국제개발협력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전공과 연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었다. 그리고 면담자들은 한 학기의 교양 과목을 통해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고 탐색해보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한 학기의 강의 동안 전문성을 쌓기는 어렵다고 인식했다.

정리하자면, 이해증진사업의 성공 사례들은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올바른 인지와 이해라는 사업의 목적에 충실하였으며, 수강생들이 이러한 강의 목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 사업 책임교수의 전문성이나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것도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의 목적이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강생들은 이 분야에 대한 진로 정보를 획득하고 본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해볼 기회를 갖고 있었다.



2. 사업의 내용

이해증진사업은 대학 내 국제개발협력 과목 개설과 해외현장학습 실시를 사업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세부내용 구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업 책임교수에게 일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 이해도 제고라는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대학들은 교과목과 해외현장학습의 내용과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가. 국제개발협력 교과목 개설과 운영

국제개발협력 교과목 개설과 운영에 있어서 성공사례들은 크게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첫째, 성공 사례들은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 대학의 특성, 책임교수의 전문성, 학생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고, 학생들의 관심과 수준을 고려하여 교과목을 운영하였다. 둘째, 사업 책임교수는 교과목을 관리·운영할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기초지식의 전달과 내용의 조율 등 교수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학생들에게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직업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1) 학생들의 관심과 수준을 반영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수도권 소재 C대학과 지방소재 E대학은 국제개발협력 교육과정 구성의 적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두 대학은 15주의 교육과정 내에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기초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특성이나 담당교수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수강생들도 이러한 형태의 교육과정 구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특화된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수강동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KOICA ODA 교육원에서는 대학별 특성화된 교육과정 구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대학은 대체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대학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별 특성화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김안나 2012). 또한 대학특성화에 대한 개념적 혼란이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대학특성화 정책 목표와 실

행 간에도 괴리가 있다(최상덕 2008).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분야 자체도 다른 학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특성화 대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국제개발협력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대학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G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차원에서 특성화 분야를 제시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은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 내에서 특정한 분야가 강조되는 이유를 공감하지 못했다.

반면에, 성공 사례 대학이 특성화된 국제개발협력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의 관심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C대학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대학생들의 관심이 높고 사업 책임교수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를 15주의 교육과정 내에 편성하였다. 그리고 E대학은 자기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사례나 대학 소재 지역 활동가의 경험을 강의에 편성하였다.

학생들은 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를 한다는 것보다는 빠르게 진행되는 재난구호, 긴급구호가 학생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것을 띄워주면 ‘어? 이게 뭐가.’ 하고, 개발도상국 빈곤문제..., 이걸 피부에 와 닿지 않는데 재난 상황 같은 것을 보면, ‘내가 저기 가서 뭘 할 수 있겠구나.’ 학생들 눈높이에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호를 (국제개발협력과 함께) 넣어주니까 학생들의 반응이 확 올라갔어요. (C대학 교수)

이처럼 두 대학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초지식 습득을 위한 내용을 강의 전반부에 편성한 후, 학생들의 관심과 대학의 특성 또는 사업 책임교수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수강생들도 이러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였다.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때 피피티를 보여주시는 데, 어떻게 구호와 개발협력이 연결되는 지 계속 설명해주시고, 구호를 배워야 저희가 개발협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셔가지고, 나중에는 그 두 개가 따로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C대학 학생)

한편, 몇몇 대학들은 이해증진 교과목의 교육내용 및 난이도를 학기별로 차별화하



여 개설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C대학의 경우, 1학기에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개론 수준의 강의를 개설하고, 2학기에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심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G대학에서는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공교양 과목과 대학의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교양 과목으로 구분하여 개설하였다. 전공교양은 담당 교수가 대부분의 강의를 맡아 이론 중심의 강의를 진행하고 전공 학생을 강의 대상으로 정해두었으며, 필요에 따라 대학 내 교수들과의 팀티칭을 하였다. 일반교양 과목은 KOICA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외부 강사를 초빙하고, 해외현장활동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대학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부는 개론 강의였고 대학원은 심화 강의였기 때문에, 학부 강의는 학생들에게 이 분야에 대한 넓이.. 다양성을 알려 주는 게 중요 했구요. 또 하나는, 이 분야가 새로운 학문이고 융합학문이고 그래서 학부 학생들에게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C대학 교수)

(우리) 과에서 이 수업을 하니까.. 국제개발협력의 이해를 우리 전공교양 과목으로 개설을 해놨어요. 우리 전공 학생들만 데리고. 그리고 이해증진 과목 이거는 대학 전체 교양이고.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홍보가 되고, 많지는 않지만 1년에 20명 정도 학교 재정 플러스 KOICA 재정 지원으로 해외현장활동 가잖아요. (G대학 교수)

이처럼, 이해증진사업의 목적인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 증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대학들은 대학의 특성, 책임교수의 전문성, 학생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관심과 수준을 고려하여 학기 별로 교육과정을 다르게 구성하거나, 기존에 개설된 관련 교과목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수강생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2) 사업 책임교수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

강의의 운영에 있어서 사업 책임교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대학이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많은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특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책임교수들은 강의의 내용보다는 교과목의 관리운영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KOICA의 사업 종료평가에서도 사업의 관리운영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업 책임교수들도 교수자의 역할보다는 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그러나 책임교수의 교수자로서 역할이 클수록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게 나타났다. C대학의 사례와 같이, 국제개발협력의 기초 과목은 사업 책임교수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외부 강사의 특강 이후에도 책임 교수가 보충 설명을 하는 경우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학생들은 사업 책임교수가 책임감을 갖고 노력한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자신도 이 수업이 그냥 학점을 따기 위한 수업이 아니라,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수업으로 인식했다.

특강을 제가 강의 안 하고 시간을 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에 필요한 부분을 하려고 했고, 될 수 있으면 제가 있으려고 했고요. 작년에 한 번인가 못 있었던 수업이 있었어요. 될 수 있으면 저도 들어야 되고 과목 흐름에 꼭 필요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있어서 연결을 해주지 않으면.. 오시는 선생님에게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학생들에게 설명 조금 더 해서 연결을 해주는 노력은 계속 해요. (C대학 교수)

또한, 사업 책임 교수는 파견강사의 특강 전후로 강의 내용을 조율하고, 자신의 강의 시간을 활용하여 보충 설명을 하였다. 다양한 강사의 특강이 포함된 이해증진 교과목의 특성상 기본적인 내용들이 중복될 여지가 많고, 전체적인 수업 구성이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책임교수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해 주십사 하고 서로 중복은 안 되도록.. 예를 들어 A교수는 교육 쪽으로 담당을 하시고, B대학 교수는 새마을, 그리고 C대학 교수는 대학의 국제화 부분 같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략)… KOICA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중복이 안 되도록 내용을 달리 해달라. (G대학 교수)

강사를 섭외해서 다른 강좌가 다루는 주제는 터치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강의원고를 미리 일주일 전에 달라 해요. (E대학 교수)

이처럼 성공사례 대학의 책임교수들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지식의 전달과 주차별 강의 내용의 조율 등 교수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서 수강생



들이 한 학기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대학 교수에게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과 강의는 당연한 과업이다. 그러나 이해증진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많은 대학의 책임교수들이 교수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사업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책임교수들이 강의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국제개발협력 직업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성공사례 대학들은 필요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의 업무 현장을 방문하거나 다양한 개발 주체들을 강사진으로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해당 직업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참여한 특수목적대학인 E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와 국제개발협력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외현장활동의 내용을 구성했다. 그 결과 학생들이 국제 및 개발협력 영역에서 자신의 전공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 직업군의 실무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해외현장체험 가면, 거기 가더라도 기업인을 만나도록 해줬어요. 현지 교민 기업인을 불러서 특강시켜주고, 기업의 활동 현장가고.. pool이 옆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기업의 CSR 같은 것도. (E대학 교수)

뿐만 아니라, 외부강사들의 전문 분야와 해외에서 실무를 담당한 지역에 따라 특강 내용의 구성과 진로에 대한 조언도 달라질 수 있다. 해외 사무소에서 오랜 경험을 한 강사의 경우, 그 나라의 상황과 맥락을 보다 자세히 전달하고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알려줄 수 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들어선지 오래되지 않은 젊은 강사들은 수강생들과 비슷한 눈높이에서 인생의 선택으로서 자신의 진로 선택 경험담과 고민을 공유할 수 있다.

15주 강의 중에 한 번 코이카 지부장님이 한 번 오셨거든요, 그 분이 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확실히 도움이 됐고, 진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하셨어도 어떤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관심이 갔어요. 흥미가 있었고, 그런 거 들어보면 괜찮은 거 같았어요. (D대학 학생)

이처럼 교과목의 내용 구성이 우수한 대학들은 수강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 선택 경험이나 해당 분야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하였다. 그리고 국내외의 국제개발협력 업무 현장을 실제로 방문하여 구체적인 직업 정보를 알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나. 해외현장활동 운영

해외현장활동의 내용과 운영 측면에서 성공사례들은 강의내용과 해외현장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사업 책임교수는 해외현장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학기가 시작할 때 미리 제공하고, 참가자 선정기준 역시 명확히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해외현장활동의 내용 구성에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고, 기관방문 등 학생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교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리고 해외현장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참가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수강생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수업 및 과제와 해외현장활동의 연계

해외현장활동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대학은 강의 내용과 해외현장활동의 연계 정도가 높았다. 보통의 경우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개념, 이론을 개괄하고, 여러 현장 실무자들의 특강을 통해 현장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해외현장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직접적으로 현장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 활동이 강의의 내용과 연계가 될 경우에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깊어질 수 있다.

그런 현장을 수업하고 연계해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 (중략)... 다녀와서 애들의 수기를 읽어보고 하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이 현장에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다고 해요. ‘선생님이 얘기하던 빈곤 문제가 이런 거구나... 아, 길이 이렇게 엉망이구나... 그런데도 애네 들은 밝은 모습으



로 어떻게든 밝은 모습으로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은 월급을 못 받는 데도 교사를 하고.’ (C대학 교수)

또한, 수강생들의 팀 프로젝트 과제와 해외현장활동의 내용을 연계시키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교과목 운영은 개론 수준을 유지하고 특정 국가와 분야에 대한 학습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 한계점을 주로 팀 프로젝트 과제에서 보완하고 있었다. 책임 교수와 수강생 면담 결과, 대부분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팀 프로젝트 과제의 학습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식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이전에 미리 선발해가지고, 학기 말에 항상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되는데, 발표를 그 마을에 대한 이해... 왜냐하면 현지랑 컨택해서 가니까. 사전에 받아서 그 마을에 가서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현재 그 마을이 가진 문제가 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표하게 하면, 수업 시간에 여러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게 될 현장하고, 일주일 마다 세미나하는 것 하고 이런 게 엮여져서 데리고 가면, 한 5일 정도 활동을 하지만..., 있으면서 애들의 인식의 변화, 조금 나아가선 태도의 변화, 또 어떤 애들은 행동의 변화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효과가 있지 않았나. (A대학 교수)

애들 과제시키고 팀 프로젝트 할 때 굉장히 옆에서 가르쳐주고 면담하고 파워포인트 몇 번씩 봐주고 해놓으면, 애들은 놀라울 정도로 멋진 결과물을 내고 얼마나 열심히 해오는 지 몰라요. 아이들의 능력이 우리가 요 정도까지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높아지는 거 같아요. 애들이 발휘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율적으로..., 저는 조교들 보고 해외현장활동 스케줄 짜는 거 많이 도와주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원하는 거를 해야지만 오너십을 가지고, 갔을 때 엑기스를 뽑아 오는 거 같아요. 사실은 국민 세금으로 나온 굉장히 귀한 돈인데,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서 하면은 훨씬 의미 있고 참여율도 좋다. (C대학 교수)

이처럼 수업이나 과제가 해외현장활동과 연계성이 높을 경우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줄일 수 있으며, 이해증진사업의 취지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운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 공정한 해외현장활동 참가자 선정

성공사례 대학들은 해외현장활동 운영에 앞서 참가자 선정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수강생들에 해외현장활동은 중요한 수강신청동기이자 본 교과목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해외현장활동은 제한된 예산으로 인하여 해당 학기의 모든 수강생이 직접 참여할 수는 없다. 이로 인해, 수강생들은 참여자 선정 과정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다.

(해외현장활동이) 수강 동기까지라고는 생각을 안했는데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나봐요. 그래서 특히 대학원생들의 경우에는 여행도 많이 하고, 또 인턴이라던가 자원 봉사를 해서 그러한 경험들이 많은데, 학부 친구들은 그렇게 한 게 별로 없어서요. 그거 한다고 해서 애들이 막 환호하고, 그거 뽑히려려고 되게 애써요. (C대학 교수)

해외현장활동 가는 게 (학생들에게) 큰 메리트지요. 애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선발할거냐.... (G대학 교수)

이러한 상황에서 성공 사례 대학의 책임 교수들은 참여자 선정 절차와 기준에 대해 학기 초부터 미리 공지하였다. 그리고 참여자 선정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조별과제 성적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대학에 따라 개인 혹은 팀 별로 선발하기도 하였다.

(해외현장활동 참가자 선정을 위한 팀 과제 발표를) 평가하는 날에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타과 교수님들을 몇 분 모셔서 같이 다 듣고 코멘트하고 그래요. (E대학 교수)

한 학기 동안 강의를 4~5번 할 때에는 학생들이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간다 생각하고 계획을 발표하는 기라. 학기 초에 나라 정도만 정해줘. 아프리카는 제외하고.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니까. 아시아 중에 안전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나라로. 요 정도만 정해줘. (G대학 교수)



해외현장활동은 학생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을 이해하는 학습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기회가 재정적인 한계로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사례에서처럼, 책임 교수들이 학생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공정하게 선발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선발 과정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3) 현장 방문기관과의 사전 협의

해외현장활동 운영이 우수한 대학들은 국제개발협력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실무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현장 사무소와 해외현장활동이 연계가 된 경우, 수강생들이 현장 실무자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수강생들이 해외현장활동 대상 국가에 대해서 학기 중에 공부를 하고 활동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KOICA 현장 사무소를 비롯한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의 방문 협조나 관계자 면담을 직접 요청하기는 어렵다. 성공사례 대학의 사업 책임교수는 해외의 여러 가지 방문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지원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였다.

실제로 우리가 가게 되면 해외 현지 사무소를 첫째 날, 밤에 도착하면 그 다음 날, 하여튼 첫 행사로 현지 사무소를 방문해. 가기 전에 내가 협조를 구해. 그러면 보통 현지 사무소에 대학생들..., 봉사단원이 20여명 있거든요. 개네들이 그날 다 와. 그래서 지내들끼리 이야기 하지.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무슨 일 하는지 구체화 되는 거죠. (G대학 교수)

해외봉사단과의 간담회는 학생들의 관심도 높고, 이 분야의 선배로서 진로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해외의 사업 현장이나 그곳에서 일어나는 업무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통 방학 때 해외 현장으로 오고, 저도 이제 필리핀 사무소하고 인도네시아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그런 학생들 많이 제가 받았는데 사실 저희가 가르치는 이런 내용들이 현장에 가면 다 그대로 볼 수 가 있고 실제 목격할 수 가 있고 실습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강의내용하고 상당부분 연계가 되고 있고요. 또 사무소에 오면, 현지에 오면, 사무소에서 또 별도로 한두시간 학생들을 위해서 브리핑을 해주

거든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거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무소에 나가 있는 건데요. (KOICA 파견강사 C)

이처럼 현장 사무소와 연결된 해외현장활동은 실무자들도 교육의 효과를 높게 평가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해외현장활동의 재정 여건 상 동남아 국가로 방문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도 현장 실무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로 간주하고 있었다.

4) 해외현장활동 참가 수강생의 경험 공유

해외현장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성공사례 대학들은 해외현장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도록 하였다. 기본적으로 해외현장활동 종료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KOICA ODA교육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그러나 해외현장활동이 모든 강의가 종료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정작 해당학기 수강생들과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 성공사례 대학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참가자 수기,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다른 수강생들과 공유하였다.

우선 연속적으로 이해증진사업의 지원을 받은 대학은 다음 학기 강의 시간에 해외현장활동 참여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우리는 그 다음 학기에, (지난 학기) 다녀온 친구들에게 과제를 줬어요. 애네들은 다녀와서 많이 친해지고 동아리처럼 되어 있어서. 애네들한테 프로젝트를 줬지요. 수업 시간에 지난 번 너희들 다녀온 이야기 좀 해라. 5명 다 앞에서 학생들 앞에 서서, 분담해서. (E대학 교수)

그리고 G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제작한 UCC를 활용하여 다른 수강생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네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짰는지 보여주라. 지네들이 가기 전부터 회의하고 했던 자료들을 모아놔어. 하도 잘 하길래 이번에도 사진 찍고 다했어. 모든 과정을. 갔다 와서 보고서 내고. 그 다음에 또 UCC로 만들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요거를 한 번 보여주라. 그러면 눈높이가 딱 맞거든. 그러니깐 내가 수업을 하는 것보다 더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G대학 교수)

(해외현장활동을 다녀 와서) 리포트를 다 하게 하고요. 그 다음 학기에 와서 발표하게 해요. 그 다음 해에 와서 발표하게 해요. 중요한 거 같아요. 그 학기는 어렵지만, 다음 학기에 발표하게 해서 이러한 현장활동에서 뭘 얻었고 어떻게 준비했고... 그런 것을 공유하게 하고 애들 site(학내 온라인사이트)에서도 하고 그래요. (C대학 교수)

이러한 경험의 공유는 새로운 수강생들의 눈높이와 일치하여 교육의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다음 해외현장활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3. 사업 성과관리

성공사례 대학들은 사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볼 때, 자체적으로 수행한 강의평가 결과를 다음 강의에 반영하고, 수강생들의 보고서와 동영상 등의 산출물을 강의 시간에 활용하였다.

1) 자체적으로 수행한 강의평가 결과의 반영

성공사례의 대학들은 강의의 질 개선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학기에 반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체적인 성과 관리는 사업의 행·재정적인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이란 본질적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을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당연히 KOICA에서 준 설문이지만, 욕심이 나는 거예요. 항목을 20개 정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다 수합을 했어요. (E대학 교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교육효과 등 일반적인 영역은 KOICA ODA

교육원이 일괄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강의평가가 사업의 관리 운영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업 책임교수가 한 학기 강의를 위해 계획한 세부 목표 및 교육효과 등 강의의 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 책임교수가 강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강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학습이 잘 이루어졌고 태도 및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지, 강의의 어떤 부분이 아쉽다고 느껴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 수강생의 학습 및 체험 경험 공유

수강생이 스스로 작성한 수기와 보고서에서는 강의목표와 관계없이 잠재적으로 학습하게 된 부분과 태도 및 인식 변화를 담당 교수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학기 수강생들이 가장 참고할 만한 산출물이기도 했다.

제가 공유했던 것은 일부러 예산을 투여해서 항상 봉사보고서를 따로 만들게 했잖아요? 그게 상당히 애들이 자기 사업을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잖아요? 대신에 보고서를 봉사활동 자체가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끝까지 다 포함시키게. 해보면 애들이 역량이 있어요. 저는 전혀 개입 안 해요. 지침만 주고, 선배들이 한 보고서를 보고, ‘이것 보다는 잘 만들어야겠다.’ 라는 식으로. (A 대학 교수)

해외현장활동 체험의 결과는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다음 학기 강좌에서 현장 활동 참가자들이 직접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과목 수강생뿐만 아니라 대학 차원에서 보고서와 동영상 등의 산출물을 다양한 형태로 공유하는 사례도 있었다.

보고서, 동영상 만들고 결과발표회. 학생들한테 교지나 교내신문에 기고하도록 한다던가, 축제에 사진전을 하게 한다던가, 도서관 로비 등에 동영상 틀잖아요. 그런데도 올리기도 하고. (E대학 교수)

이해증진사업의 직접 수혜자인 수강생들이 보고, 배우고, 듣고, 느낀 것들은 단지 설문과 보고서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 관리가 우수한 대학에서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형태로 그 학습 경험과 현장 체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4. 논의와 시사점

이 장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각 대학의 실제 운영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공적인 사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공 사례의 책임 교수들은 대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에 집중하였고, 학생들 또한 이러한 강의의 목적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과목 운영과 성과 관리도 이러한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발전적인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성공사례들은 교과목 구성, 책임 교수의 역할 수행, 직업 정보 제공 등이 우수하였다.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강좌에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모든 내용을 기초부터 시작하였고, 각 책임 교수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접목하거나 대학의 특성화와 연계하여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및 ODA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정확히 인지하고 보다 심화된 내용까지 학습할 수 있었다. 또한, 학기를 구분하여 ‘일반교양-전공교양’이나 ‘학부-대학원’ 수업 등으로 개설할 경우에는 강의의 내용을 선정하고 난이도를 조절하기가 용이하기도 했다. 대학 전체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일반교양 강좌는 국제개발협력 및 ODA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학생들도 이 분야에 관한 인지도 및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이해증진사업의 취지에 가장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핵심 및 전공교양, 대학원 수준의 수업은 이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인 내용까지 다루어 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책임 교수는 기본적인 내용의 강의를 직접 담당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개괄하고 학생들의 부정확한 지식이나 인식을 바로잡아 줄 뿐만 아니라, 한 학기 강의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외부 강사의 특장이 많은 과목의 특성 상, 강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한 학기 강의가 산만해질 수 있지만 책임 교수의 노력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우수 대학들은 본 교과목의 구성요소인 특강과 해외현장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직업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 때 파견 강사가 수강생들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고민을 했다면, 학생들이 보다 강사의 경험담과 정보를 신뢰할 수 있으며, 해외현장 활동을 통해서 해당 직업 분야의 실제 근무지를 체험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가장 정확한 직업 정보를 줄 수 있었다.

둘째, 우수한 해외현장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이해증진 교과목의 수업이

나 과제가 해외현장활동과 연계성이 높았고, 참여자는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참여 학생들이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책임 교수가 방문(또는 활동)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지원하였다. 또한 해외현장활동 참여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성공사례 대학들은 강의와 해외현장활동이라는 이론과 실재를 분절적으로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에서 배웠던 개발협력의 쟁점, 분야, 지역 등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여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도록 연계시켰다. 또한, 팀 프로젝트 과제는 개론 강의나 특강에서 다룰 수 없었던 부분과 심층적인 내용을 학생들 스스로 기획하고 구성해가며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 모두 그 효과가 크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 예를 들어 KOICA 현장 사무소의 협조 같은 문제는 책임 교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현장활동의 학습 효과를 제고하였다. 이러한 현장활동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KOICA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며 해외현장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해외현장활동 운영을 성공적으로 하는 대학들은 그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학기 초부터 이에 관해서 충분히 공지하였다. 그리고 선정 절차 또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활용하거나 외부평가자들을 초청하기도 하였다.

셋째, 이해증진사업의 성공 사례들은 우수한 성과 관리를 통해 다음 학기 혹은 다음 연도에 개설되는 강의를 개선하고 있었다. 사업 책임 교수들은 설문 문항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KOICA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효과, 만족도 등과 같은 설문 결과와 각 대학의 강의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사업 책임자가 한 학기 강의 동안 목표했던 것을 추가적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즉, 강의평가를 사업의 운영 및 관리측면보다 국제개발협력을 이해하도록 가르치는데 효과적인 교육과정, 교수법 등을 찾아가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이해증진사업의 교육 효과는 설문으로 조사할 수 없는 인식, 태도, 실천 등의 영역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우수 대학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작성한 보고서뿐만 아니라, UCC, 결과발표회, 교지나 교내신문 기고 등 역동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상의 이해증진사업의 성공사례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IV-1>과 같다.



〈표 Ⅳ-1〉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성공사례의 특성

영역		성공 사례의 특성
사업의 목적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초점을 맞춤 * 명확한 강의 목표 제시 및 공감대 형성 * 권장도서의 효율적 활용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위한 특성화 주제 선정
사업의 내용	교과목 개설과 운영	학생들의 관심과 수준을 반영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 구호, NGO, 직업훈련 등으로 특화 * 혹은 학부/대학원, 일반/전공교양 등으로 차별화 사업 책임자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 * 기초 강의는 사업 책임 교수가 직접 담당 - 직업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 해외현장활동과 파견 강사를 활용한 직·간접적 직업 세계 체험
	해외현장 활동 운영	수업 및 과제와 해외현장활동의 연계 * 해외현장활동 프로그램을 학생 스스로 구성 공정한 해외현장활동 참가자 선정 * 명확한 선정 기준 설정 및 공지 현장 방문기관과의 사전 협의 * 필요 시 참여교수의 적극적 지원 해외현장활동 참가 수강생의 경험 공유 * 다음 학기 수업 시간에 참가 수강생의 경험담 발표
사업 성과관리		자체적으로 수행한 강의평가 결과의 반영 * 자체 강의평가를 강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수강생의 학습 및 체험 경험 공유 * UCC, 사진전, 발표회 등 창의적인 방법으로 공유

V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의 개선 방안

- 1. 사업의 목적
- 2. 사업의 내용
- 3. 사업의 성과관리



V.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의 개선 방안

지난 5년 동안 이해증진사업은 대학생들에게 개발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ODA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향후 이해증진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확산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드러났다. 이해증진사업이 지난 5년 동안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 개선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통계분석, 질적 자료 수집과 분석, 영역별 성공사례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목적’, ‘사업의 내용’, ‘사업 성과관리’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세한 이해증진사업의 개선방향 및 영역별 개선 방안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V-1>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의 개선 방향

개선 방향	1) 사업의 목표를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이를 통한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에 초점을 맞추고 양적 확대를 추진한다. 2) 모든 대학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국제개발협력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3) 모든 대학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해외현장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한다. 4) 사업관리를 위한 책무성 평가에서 탈피하여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5) 강의평가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	---

<표 V-2>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의 영역별 개선 방안

영역		개선 방안
사업의 목적		1) 사업목적의 변경 및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한 공감대 형성 2) 범정부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과 전문인력양성의 지원 주체 구분 및 교양과목으로서 이해증진사업의 양적 확대를 추진 3) 제안서 심사에서 특성화 교육과정에 대한 별도의 가산점을 삭제하고, 교육과정 구성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로 통합함
사업의 내용	교과목 개설과 운영	1) 5주차 정도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교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 2) 국제개발협력 이해도 측정 도구 개발 및 보급 3) 대학의 학사일정 고려 및 교과목 개설의 안정성 확보
	해외현장 활동 운영	1) 해외현장활동의 계획보다는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의 강화 2) 해외현장활동 운영 방식을 ‘대학 자체 운영, KOICA 지원 운영, KOICA WFK 연계 등’ 으로 다각화 3) 해외현장활동의 성과 확산 방안 마련(발표회, 자료집, 학생조직 지원 등)
사업 성과관리	종료평가 및 성과보고	1) 사업의 기대효과 및 사업 수행기관의 직무역량에 대한 충실한 분석에 근거한 종료평가 영역 및 세부기준의 재설정 2) 각 대학의 여건과 강의 맥락 등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질적 지표의 개발 및 활용 3) 사업 결과보고서 및 종료평가 결과의 환류 체제 구축 4) 외부 평가위원의 참여 확대
	강의평가	1) 강의 평가주체의 다면화 2) 강의 평가 횟수의 조정(학기 초와 학기 말 평가 및 형성평가) 3) 다양한 강의 평가 방식의 개발 4) 강의 평가 결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5) 교과목의 질 제고를 위한 강의 평가 결과의 활용



1. 사업의 목적

가. 개선의 필요성

성공요인 분석 결과에서 확인하였듯이, 이해증진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사업의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서로 합의된 성과 목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면담 결과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의 사업 목적에 관해서 ODA 교육원의 사업관리자와 사업참여자(책임교수, 수강생, 강사) 간의 인식이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ODA 교육원의 사업관리자들은 사업의 목적을 ‘1)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증진, 2)국제개발협력 분야 진로 탐색 및 실무역량 강화, 3)국제개발협력 연구역량 강화’의 세 가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2014년도 사업 가이드라인에도 이러한 점을 명시하였다(KOICA ODA 교육원 2014).

저희가 국제개발협력 교과목을 개설 해드리면 보통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국제개발협력 이론과 사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개론적인 수업이 들어가서...물론 그게 이해 증진에는 도움이 되지만, 저희가 사실 거기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학교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 학교의 특성화와 매칭을 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내부적으로 있었어요. (사업담당자 A)

이해증진사업의 도입 초기에는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 및 ODA에 대한 이해 증진이 주요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점차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홍보와 기초 이해를 넘어서, 대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 분야 진로 탐색 및 실무역량 강화, 분야별·지역별·이슈별 연구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증진이라는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외부의 비판을 극복하고, ODA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타개책이었다.

그러나 사업을 담당하는 책임교수들은 학생들에게 ODA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서 세계시민의식이 함양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주체들과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문인력 양성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

출 경우, 관련 학과가 자체적으로 개설하는 전공과목에 KOICA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변질되어, 오히려 사업 본연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세상에 자기 진로를 한 과목 듣고 설계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too ambitious*한,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기재부에서 돈을 받기를 원하거나 국회에서 세 일즈할 때 좋은 포인트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 교육 목적 자체를 한 과목을 한 학기에 다양한 사람들한테 수강하고 자기 진로에 관한 어떤 문제를 거기로부터 제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체계적으로 ‘내가 한 과목을 15주 듣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국제개발이 아니라 어떤 주제라도. 그것(전문인력양성)은 *too over ambitious*하고. (K 대학 교수)

그리고 수강생들도 ODA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을 통한 이해도 제고를 가장 중요한 수강 동기로 제시하였다. 면담 결과에 따르면, 수강생들은 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 수업을 수강하였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전문 강사의 강연이나 해외현장학습에 큰 흥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 장의 수강생이 인식한 성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정보 습득의 기회가 제한적인 지방 소재 대학 학생들의 경우에는 KOICA 직원이 직접 현장의 이야기를 해준다는 점에 대해서 가장 큰 기대가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대학의 구성원인 책임교수나 수강생들은 이해증진사업의 목적을 주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이해도 제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대학 구성원들은 4년 동안 학부 전공과정을 이수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한 학기에 한 과목이 개설되는 교양강좌 수업을 통해 전문가 양성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ODA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KOICA 파견 강사의 경우에도 사업의 목적을 대학생들의 이해도 제고를 넘어 전문인력 양성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이 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애들이 이쪽 꿈을 꿀 수 있다면, 현실 기반해서 팩트 제공하는 역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거품, 환상이 있다면 지우고, 그게 1단 제고. 또 정말 그 이상이 있는 애들에게는 구체적 방향이라든지 등을 제시해주어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 (중략) ... 전문인력으로 가는 동기부여는 되겠지만 실



제 전문인력 양성은 아니다. 한 강사가 인텐시브하게 탁 맡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측에서 원하는 사람을 하잖아요. 가이드를 주기 보다는. 근데 보니까 솔직히 좀 중구난방이더라고요. 그냥 저변확대밖에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 같아요. (KOICA 파견 강사)

이와 같이 이해증진사업의 목적에 관하여 책임교수와 학생, 그리고 강사들 간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사업을 총괄하는 ODA 교육원 관계자와 사업 참여자들 간에는 인식차가 현저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차이로 인해서 사업의 내용이나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인식차가 존재하며, 개별 대학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결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결국은 ODA 교육원이 추구하는 사업의 목적을 인지시키고 목적에 동의하는 사업자를 선정할 것인가, 아니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의 목적을 변경할 것인가가 향후 사업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 목적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ODA 교육원의 설립 취지와 기능을 고려할 때, 이해증진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나. 개선 방안

개선 방향	이해증진사업의 목표를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이를 통한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에 초점을 맞추고 양적 확대를 추진한다.
개선 방안	1) 사업목적의 변경 및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한 공감대 형성 2)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과 전문인력양성의 지원 주체 구분 및 교양과목으로서 이해증진사업의 양적 확대를 추진 3) 제안서 심사에서 특성화 교육과정에 대한 별도의 가산점을 삭제하고, 교육과정 구성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로 통합함

이해증진사업의 목표를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이를 통한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에 초점을 맞춘다. 국내에서 ODA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DA 교육원의 강좌나 일부 민간단체에서 특강 형태로

제공되는 기회 이외에 대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습득할 통로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일부 대학이 대학원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부 수준에서는 개발교육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이 2015년 이후의 중요한 글로벌 교육의제로써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최정윤 외 2014).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며, 뚜렷한 대안도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 양성은 학위과정과 직무표준 등을 총괄하는 교육관련 정부부처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해증진사업에서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해증진사업은 사업 시행 초기에 추구했던 대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개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업 예산의 증액을 통해서 보다 많은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과정의 질 제고를 통한 효과성 제고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증진사업의 목적을 명료화하고,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참여 희망 대학의 교수들이 사업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설명회 개최 전에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해증진사업은 2009년 시작된 이래로 사업의 목적과 평가 기준 등이 거의 매년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시행착오의 과정이었지만,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업의 목적을 명료화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는 최소 3-5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 내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양강좌 개설 지원(ODA 교육원)과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양성 지원(교육부)의 주체를 구분하고, 이해증진사업의 양적 확대를 추진한다. 그리고 대학에서 개발교육과 전문인력양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담당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학생의 관심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후속세대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학생의 국제개발협력 인지도 및 이해도 제고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과 이해도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신규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 교양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와 양적 확대가 요구된다. 특히 이해증진사업은 고등교육 수



준에서 유일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전체 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보다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수의 대학 참여에 따른 사업관리부담을 해소하고 신규 참여 대학의 교과목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ODA 교육원은 사업전담 전문 인력을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제안서 심사에서 개설 대학이나 학과 또는 책임교수의 전공 특성 등을 반영한 교과목 개설에 대한 별도의 배점(15점)을 삭제하고, 교육과정 구성의 적합성 항목을 신설한다. 현행 사업 구조 속에서 특성화 교육과정의 내용이 단순히 대학이나 개별 교수의 관심만을 반영할 경우에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성공사례 분석에서 확인하였듯이, 특성화 교육과정의 성패여부는 얼마나 제대로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했느냐에 달려있다. 학생들의 수요는 특정한 주제나 지역과 같이 내용에 대한 요구인 경우도 있고, 특정한 강사에 대한 요구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특성화 교과목 개설 여부보다는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구성이 얼마나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 제안서 심사 기준의 개선(안)을 제안하면 아래의 <표 V-3>과 같다.

〈표 V-3〉 제안서 심사기준 개선(안)

평가영역	평가항목	주요 질문 (예시)
사업 추진역량 평가 (15점)	사업책임자의 전문성 (5점)	사업책임자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활동 실적
	기관의 전문성 (5점)	- 기관의 물적·인적 자원 활용계획 - 대학의 전략 및 정책과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는가?
	기타 (5점)	전년도 종료평가 결과 반영
사업 타당성 평가 (70점)	교육과정 구성의 적합성 (35점)	- 주차별 강의내용은 사업목표 달성에 적합한가? - 개설된 강의는 관련 이해당사자의 수요를 반영하였는가? - 수강생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강의의 내용과 수준은 적절한가?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타 대학과 구분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과정이 있는가?
	해외현장 활동의 적합성 (15점)	- 해외현장활동의 목표가 명확한가? - 강의내용과 해외현장활동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해외현장활동의 내용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예산편성의 적절성 (10점)	- 소요예산 산출 근거는 명확한가? - 예산의 항목별 배분은 적절한가? - 예산집행 계획은 적절한가?
	모니터링 및 평가 (10점)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수립 여부
사업성과 확산 (15점)	홍보방안 (5점)	- 구체적인 사업 홍보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사업 홍보 방안은 실현가능한가?
	성과확산 방안 (10점)	- 사업성과의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였는가? - 사업성과 확산 방안은 실현가능한가?
합계	100점	
총평		



2. 사업의 내용

가.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1) 개선의 필요성

이해증진사업은 사업의 내용 중 하나로 대학 내에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 개설을 지원한다는 점을 명시할 뿐, 세부내용 구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업책임자에게 일임하고 있다. 그리고 ODA 교육원은 사업책임자들이 작성한 강의개설 및 운영 계획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사업책임자들은 대학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대학별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대학이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운영 방식도 일반교양과목으로서 외부강사의 특강 형태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처럼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의 세부내용이 대학별로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개설되고 있지만, 강의내용의 깊이와 강사진의 역량에는 대학별 편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편차의 원인은 크게 사업 책임자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전문성과 대학의 소재지의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로 사업 책임자가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전공했거나 경험이 풍부한 경우에는 책임자가 주요개념이나 쟁점들을 직접 다룰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ODA 교육원의 권장도서나 KOICA 파견 강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업 책임교수들 중에는 권장도서의 내용조차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외부 강사별 교육과정의 중복 문제를 극복하거나 보충설명 등에도 한계를 갖고 있다. 반면에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업책임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에 기초하여 보다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거나, 해당 분야에서 권위 있는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교재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와서 딜리버리(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교재 만들어져 있어서 그거 가지고 나와서 하는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생동감 있겠냐는거예요. (A대학 교수)

두 번째로 대학이 지방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사의 초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사료 외에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하지만, 지리적인 접근성 때문에 외부 강사들이 지방보다는 수도권 대학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사업책임자의 강의 시수가 수도권에 비해서 많고, 1-2명의 외부강사가 수차례 강의하는 경우도 많았다. 물론 외부 강사의 특강이 많을수록 양질의 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해증진사업의 특성상 외부 강사의 특강은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주체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수강생들도 이러한 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다 다른 분들이 온다고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처음에 종이를 나눠줄 때. 근데 아무래도, 예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똑같은 분이 조금 많이 오셨었어요. 저는 좀 다른 분을 기대를 했거든요. 코이카에서도 그 분이 일하시는 거랑 다른 분이 일하시는 거랑 일의 업무가 다르고, 업무 내용이 다르고. 여러 번 오시니까 깊이 들어가는 건 좋은데 다양한 분야를 더 보고 싶다. 뭐 이런거. (D 대학 수강생)

이와 같이 전체적인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있어서 대학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사업책임자의 역량과 대학 소재지에 따라서 강의의 세부내용과 외부 강사초빙에는 편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수강생들의 국제개발협력 이해도 제고나 강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에 있어 대학별 편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향후 중요한 쟁점 중 하나라고 하겠다.

또한 공모 기간이 대학의 강의 개설 일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개설된 강의를 운영하거나 학생들의 수강신청 기간 직전에 강의를 추가 개설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현행 이해증진사업은 매년 11월 사업 공고 후에, 한 달 동안의 공모기간을 두고 제안서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학의 1학기 신규 강의 개설 신청은 전년도 9-10월에 이루어지고, 2학기 강의 개설도 3-4월 중에 완료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학기 시작 2개월 전부터 강의계획서를 공개하고, 1개월 전에는 수강신청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해증진사업을 신청하는 시점에 이미 차년도 1학기 강의 개설 신청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단으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학사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로 2014년 공모에서 탈락했던 모대학은 이미 개설공지가 나



가고 임시수강신청을 받은 상태라 강좌를 취소할 수가 없어서 담당교수가 강사료 확보 등 소요예산을 가깝스로 확보하여 강좌를 운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도 2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 13개월로 운영되기 때문에, 종료평가 결과를 차년도 강의 개선에 반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의 학사 일정을 고려하고 국제개발협력 교과목 개설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개선 방안

개선 방향	모든 대학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국제개발협력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개선 방안	1) 5주차 정도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교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 2) 국제개발협력 이해도 측정 도구 개발 및 보급 3) 대학의 학사일정 고려 및 교과목 개설의 안정성 확보

교육과정과 운영의 개선 방향은 모든 대학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국제개발협력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해증진사업은 대학생들의 ODA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대학별 자율성에 기초한 현행 사업 구조 속에서는 대학의 역량에 따른 대학생의 이해도 격차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모든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 증진이라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기본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ODA 교육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5주차 정도의 기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대학은 전체 강의의 1/3 이내로 기본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사업 책임교수가 담당하고, 나머지 2/3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ODA 교육원에서는 6개 모듈로 구성된 국제개발협력 기본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이 대학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교육원이 개발한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정보가 이미 오래되었거나 새로운 이론 등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

문이다. 국제개발협력이라는 학문분야가 비교적 신생 분야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양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선 작업이 수시로 요구된다. 따라서 ODA 교육원을 중심으로 각 대학의 사업책임교수 등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서, 대학의 교양강좌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면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질 개선과 대학별 편차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제개발협력 이해도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측정 도구는 기본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초 지식의 습득여부와 같은 인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ODA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와 같은 정의적인 영역도 포함한다. 이를 통해서 국내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대학의 수강생들이 강의 수강으로 인하여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 수준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어떠한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 관련 분야 진로에 대한 흥미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등과 같이 이해증진사업의 효과성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대학의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 공모 기간을 조정하고, 교과목 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다년도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 사업 구조는 대학의 학사 일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는 KOICA의 재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를 개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절차상의 한계는 강의의 폐강이나 계획과는 다른 방식의 강의 운영 등, 결과적으로 수강을 희망한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사업 공모 기간을 매년 9-10월 정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년 사업을 공모하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는 안정적으로 강의를 운영하기 어렵고, 종료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강의 개선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업 기간을 2-3년의 다년도 사업으로 조정하여 사업단을 선정하고, 매년 연차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 기간 조정을 통해서 대학에서는 강좌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종료평가나 강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질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KOICA ODA 교육원 측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행정 업무 처리 부담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해외현장활동 운영

1) 개선의 필요성

이해증진사업의 내용 중에서 해외현장활동 지원은 대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 현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많은 수강생들이 해외현장활동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교과목 수강의 동기로 이야기할 정도로 학생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해외현장활동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해외현장활동의 세부 활동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본연의 취지를 상실한 채 저개발국가 관광 수준에 머무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전반적인 교육과정이나 학생의 수요와 무관하게 사업 책임교수의 개인적인 관심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ODA 교육원 내부에서조차 해외현장활동이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이라는 사업의 목적 달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있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의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라는 점에서 해외현장활동 지원 자체를 폐지하기는 무리가 있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듯이, 이해증진사업은 국제개발협력 관련 이론과 실제(현장)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대학의 사례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해외현장활동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사업 구조 속에서는 제안서 심사기준에 해외현장활동 계획 수립 여부(10점)가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 대학은 제안서 제출 시에 해외현장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성공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듯이, 강의 수강 중과 수강 후에 해외현장활동 참가 대상자들이 스스로 활동 내용을 준비하고,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책임교수와 대학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 참가 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업 운영 체제 내에서는 매학기 해외현장활동 실시 2개월 전에 구체적인 해외현장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율적인 내용 구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제출된 계획서와 실제 활동이 상이한 경우도 나타난다. 또한 해외현장활동 결과보고서를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로 일정

과 예산 집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해외현장활동에서 참여 학생들이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그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외현장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관리라는 측면에서 현행 운영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현장활동의 소요예산에 비해서 재정 규모 및 편성 비율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현장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강생은 소수에 불과하다. 2013년 기준으로 대학별 최대 지원 금액은 3,000만원이지만 해외현장활동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60% 이내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KOICA 2014). 그리고 대학별 평균 지원금액 28,419,340원 중에서 해외현장활동에 지출한 금액은 평균 11,600,487원으로 전체의 약 40.1%를 차지한다(KOICA ODA 교육원 내부자료). 또한 2013년 기준으로 43개 대학에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총 5,516명이고, 이 중에서 해외현장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787명으로 전체의 약 14.3%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대학의 자체적인 지원을 통해서 해외현장활동에 참여한 수강생과 1-3명의 인솔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KOICA 지원을 받은 학생의 수는 더욱 줄어든다. 게다가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서 아시아권 이외에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 현장 경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ODA 교육원 측에서는 대학의 매칭을 유도하고 있지만, 열악한 한국 대학의 재정 구조상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KOICA 지원이 없어도 과목 개설은 할 수 있는데, 외국에 애들을 보내고 하는 것까지 할 수 있겠나 생각이 들죠. 일반 사립대학은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G대학 교수)

이처럼 현행 사업 구조에서는 해외현장활동이라는 사업의 혜택이 소수의 선발된 인원에게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제한된 예산 내에서 해외현장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수의 해외현장활동 경험자의 성과를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많은 수강생들이 국제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외현장활동의 운영 방식을 다양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개선 방안

개선 방향	모든 대학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해외현장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한다.
개선 방안	1) 해외현장활동의 계획보다는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의 강화 2) 해외현장활동 운영 방식을 ‘대학 자체 운영, KOICA 지원 운영, KOICA WFK 연계 등’ 으로 다각화 3) 해외현장활동의 성과 확산 방안 마련(발표회, 자료집, 학생조직 지원 등)

모든 대학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해외현장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한다. 해외현장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운영과 성과 확산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학과 KOICA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현장활동 계획에 대한 평가보다는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안서 심사에서 모든 대학의 해외현장활동 계획 수립 여부나 구체성을 평가하기보다는 ‘해외현장활동 목표의 명확성’, ‘강의내용과 해외현장활동의 연계 방안’, ‘해외현장활동의 내용 구성을 위한 방안’ 과 같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대학에 한하여 적합성과 지원 노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외현장활동 계획서 제출 시기도 실시 1개월 전으로 조정하여, 수강생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해외현장활동을 직접 기획 및 운영하는 책임교수들은 해외현장활동 대상 국가와 개략적인 계획은 사업계획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사업 선정 후에 KOICA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개강 전까지 국가 및 지역 선정에 대한 협의를 마치도록 한다. 그리고 모든 책임교수들은 해외현장활동 대상 국가를 개강 이전까지 반드시 확정하고, 초반에 공지하여 수강생들이 해당 국가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행·재정 보고 중심으로 구성된 현행 해외현장활동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세부 활동, 방문기관 정보, 면담자(또는 접촉인물) 정보, 참여학생의 감상 등 사업의 성과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KOICA 현장사무소나

ODA 교육원이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 모니터링이 대학별 해외현장활동 계획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만 활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현장 모니터링은 대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의 이론적 지식과 실제 현장을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그리고 그 현장에서 대학생들의 이론적·실천적 역량은 어떻게 발현되는지 등을 관찰하고, 이를 ODA 교육원의 지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상국가, 활동내용, 주제 등을 고려하여, 참여 대학 및 KOICA 현장사무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ODA 교육원 구성원의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이해증진사업을 포함한 ODA 교육원이 실시하는 개발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해외현장활동 운영 방식의 다각화를 추구한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개발국가의 현실이나 국제개발협력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사업 구조 속에서 해외현장활동의 내용 구성과 운영은 대학별 사업 책임교수의 전문성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별로 국제개발협력 경험이나 역량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외현장활동의 내용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도 질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일부 대학은 해외현장활동을 위한 네트워크나 경험이 풍부하여 국가 선정이나 활동 내용 등 교육과정 구성이 수월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러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대학별 역량의 차이는 해외현장활동의 질적 격차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결국 수강생들의 국제개발협력 이해도의 차이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해외현장활동의 질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미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발하는 방식 외에, 역량이 부족한 대학에 대한 컨설팅 및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ODA 교육원이 해외 KOICA 사무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몇 개 대학이 연합하여 해외현장활동을 실시하는 형태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KOICA의 지원을 받아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진행하는 대학생 단기 해외봉사단 사업과 연계하여,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 수강생이 지원 가능한 정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그리고 해외현장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금액인 1,500만 원 정도로 지원 금액을 축소하여, 더 많은 대학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현장활동의 성과를 확산한다. 현재 해외현장활동은 방



학 중에 이루어지고 소수의 선발된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학기 중에 해외현장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기도 쉽지 않고, 해외현장활동 참여자의 경험을 타학생과 공유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외현장활동 경험자의 성과를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각 대학과 ODA 교육원이 제도적으로 성과 확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각 대학은 해외현장활동 참여 학생들의 결과보고서나 수기를 결과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한다. 그리고 매년 ODA 교육원 주최로 대학별 해외현장활동 사례 발표회나 참가자 수기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그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ODA 교육원에서 해외현장활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들의 동아리(가칭 대학생 ODA 교육원 서포터스)나 스터디 그룹 등 조직 구성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및 개발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업 성과관리

현행 이해증진사업은 사업 성과 관리를 위하여 크게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첫째, 관련 사업이 종료된 후 개별 강의마다 사업성과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종료평가 기준에 따라 KOICA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자평가를 거치게 된다. 여기에서는 사업수행 역량과 의지, 행정협조도, 강사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게 되는데, 전년도 평가결과는 차년도 사업선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 강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강의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참고로 2012년에 개설된 강의에 대해서는 KOICA 초청 강사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향후 강사섭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강의 전후로 하여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수강 후 ODA에 대한 인지도 변화를 살펴보고, 강의의 기대효과 대비 만족도가 어떠한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사업 종료평가와 강의평가는 평가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계량적 지표 중심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실시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업 종료평가 및 성과보고

1) 개선의 필요성

2014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현재 KOICA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업 종료평가 기준은 다음의 <표 V-4>와 같다. 그리고 <표 V-4>에서 제시한 사업 종료평가 기준을 분석한 결과, 크게 세 가지의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V-4>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종료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체계	
목표 달성도 (30점)	계획대비 집행실적 및 결과(10점)	사업목표 및 집행실적(10점)	(산식) 사업결과보고서 사업목표 및 집행실적 확인 (점수체계)	
			사업목표와 집행실적 연계 및 구체성이 높을 경우	10점
			사업목표와 집행실적 연계 및 구체성이 보통일 경우	8점
			사업목표와 집행실적 연계 및 구체성이 낮을 경우	6점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20점)	회계평가(20점)	(산식) 회계법인 정산보고서 점수 확인 (점수체계)	
			1차에서 80점 이상	20점
			1차 80점 미만, 2차 90점 이상	16점
			1차 50점 미만, 2차 90점 이상	12점
			1차 50점 미만, 2차 80점 미만	8점



사업 수행 기관 역량 (40점)	모니터링 및 관리(10점)	강의평가 및 강사평가 실시율(10점)	(산식) $\{[(\text{강의평가 참여자})/(\text{수강생}) \times 100] + [(\text{강사평가 참여자})/(\text{수강생} + \text{교수, 조교}) \times 100]\} / 2$ (점수체계)	
			90% 이상	10점
			70% 이상	8점
			70% 미만	6점
	사업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20점)	전담교수 강의 실시율(5점)	(산식) (전담교수 강의 수/전체 강의 수)*100 * 중간/기말 제외 * 전담교수 : 책임강의교수 및 팀티칭 교수 포함 (점수체계)	
			25% 이상	5점
			20%이상 25% 미만	4점
			20% 미만	3점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경험 및 노력(5점)	(산식)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 및 노력* 건수 * 최근 3년 간 KOICA 및 ODA 관계부처의 프로젝트, 연수 등 사업참여 경험, 개도국 현지 대학과 협력노력, 해외봉사활동 실시 건수 (점수체계)	10건 이상	5점
			5건 이상	4점
			5건 미만	3점
	행정협조도 (10점)	(산식) 공문 및 문서* 제출 기한 준수 정도 * 강의 요청서, 착수보고서, 해외현장활동 계획서, 결과보고서 (점수체계)	기한 준수 시	10점
			1일 초과 시 0.5점 감점	
	커리큘럼 및 강사운영의 적정성(10점)	기본강의 포함여부 강의구성 및 해외현장활동 충실도	(산식) $[(\text{기본강의 포함여부 점수}) \times 0.3] + [(\text{강의구성 충실도}) \times 0.3] + [(\text{해외현장활동 충실도}) \times 0.4]$ (점수체계)	
			[기본강의 4개 포함여부] 1개 미포함 시 1점 차감	10점
			[강의구성 충실도] 강의내용 및 강사선정 매우 타당/ 보통/ 낮음	10점/8점/6점
			[해외현장활동 충실도] 목표, 일정, 내용, 활동성과의 연계 및 구체성 높음/보통/낮음	10점/8점/6점

이해 증진 기여 도 (30점)	대상자 참여도 및 만족도(20점)	계획대비 수강생 수 (5점)	(산식) (실제 수강생 수/ 계획된 수강인원) *100 (점수체계)	
			100% 이상	5점
			80% - 99%	4점
			79% 이하	3점
	국제개발협력 이해도(15점)		(산식) (Σ 개별 수강생 설문응답 점수)/수강생 수 (점수체계)	
			4점 이상	15점
			3점 이상 4점 미만	12점
			3점 미만	9점
	홍보결과 (10점)	홍보 건수(10점)	(산식) 홍보*건수 * 기사 건수, 행사 건수, 자료집 발간 건수, 현수막 홍보 여부(1건), 홈페이지 공지 여부(1건), 동영상 제작여부(1건) (점수체계)	
			10건 이상	10점
			5건 - 9건	8점
			5건 미만	6점

출처: KOICA ODA 교육원(2014). 2014년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가이드라인.
KOICA ODA 교육원. pp. 16-17.

첫째, 평가 영역 간 의미가 중첩되어 있고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소 모호하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평가 대영역은 크게 ① 목표달성도(30점), ② 사업 수행기관 역량(40점), ③ 이해증진 기여도(30점)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각각의 대영역 간 의미가 중첩되어 있고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소 모호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예컨대, 목표달성도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목표 및 집행실적은 결과적으로 이해증진 기여도라는 측면과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중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리고 종료평가 점수체계 상 사업목표와 집행실적 간 연계 및 구체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구체성이 ‘높다’, ‘보통이다’, ‘낮다’로만 제시되어 있어 평가에 관여하는 다수의 평정자 간 서로 다른 기준에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점자간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배점 할당에 있어 타당도가 낮아서 현행 평가기준에 의하면 행정적으로 기관 협조를 원활하게 잘 하고 재정 및 회계집행에 정산이 잘 된 강의가 효과적인 강의라고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



둘째, 대영역에 따른 영역별 평가 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이 서로 불일치하고 있다. 목표달성도 영역의 경우 KOICA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사업 운영 목적에 해당하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증진, 진로탐색의 기회 탐색’ 효과와는 무관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이 20점을 차지하고 있다. 즉, 해당 지표에 의하면 회계 평가를 통해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한 강의가 목표를 잘 달성한 강의로 평가되기 쉽다. 그리고 사업수행기관의 역량 영역 역시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채 평가 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이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사업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20점)’의 세부 기준 중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경험 및 노력’은 5점에 불과한데 반하여, ‘행정협조도’는 10점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문 및 문서 제출 기한을 얼마나 정확히 준수했는지에 따라 감점되는 방식이므로 기관의 전문적인 수행역량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모니터링 및 관리 항목에 대해서 강의평가 및 강사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ODA 교육원 측의 평가 참여자 수를 평가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협조도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강의평가 도구를 통한 평가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노력에 대한 고려 없이 종료평가에 10점 할당하고 있다. 따라서 오히려 강의 개선을 위한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이 과소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해외현장 활동의 경우 예산 집행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각 사업수행기관의 역량이 드러날 수 있는 핵심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종료평가를 통해서는 그 내용과 질에 대한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해증진기여도 영역에서 ‘대상자 참여도 및 만족도’의 경우 ‘계획대비 수강생 수(5점)’와 ‘국제개발협력 이해도(15점)’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국제개발협력 이해도는 개별 수강생의 설문응답결과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데, ODA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강의평가는 의무가 아니라 학생 선택사항이라는 점에서 응답자 간 편의(Bias)가 발생 가능하여 응답의 신뢰성 및 응답자료 활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셋째, 종료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양적 지표를 통한 계량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계적인 산식에 의하여 점수를 평정하기에 용이한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개별 강의마다의 차별적 특징을 고려하여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다. 예컨대, 강의 규모 및 성적 평가 방식, 대학 소재지, 전담 행정조교의 존재 유무, 해외 봉사활동에 대한 교수자의 가치 설정과 소속 대학 차원에서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에

따라 강의에 대한 평가를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종료평가 기준에서는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고정된 구조이다. 그런데 개별 강의마다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양적 지표 위주로 접근할 경우 오히려 평가가 강의를 조정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사업수행기관의 역량과 관련하여 책임교수 강의 실시율의 경우 20% 미만일 경우 최하점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책임교수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간접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의 강좌 운영을 저해할 수도 있다. 반대로 외부 강사를 섭외하지 못한 대학의 경우에는 별다른 노력 없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한편, 이와 같은 종료평가를 실시할 때, 기관에서 활용하는 자료 중 하나는 바로 사업 종료 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 결과보고서이다. KOICA에서는 사업 종료 후 ① 사업 개요(사업명, 사업목표, 사업기간, 사업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② 사업 추진 결과(사업추진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주요 홍보실적), ③ 자체 평가 및 종합의견(종합의견, 사업운영 과정평가, 사업결과 성과평가, 건의사항)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표 V-5〉 참조).



<표 V -5> 현행 사업결과보고서 목차

사업수행 상세보고서

I. 사업개요

1. 사업명
2. 사업목표
3. 사업기간
4. 사업대상
5.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II. 사업추진결과

1. 사업추진 성과(추진일정, 기대효과 등 포함)
2.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체제, 방법, 계획대비 실적 등)
3. 주요 홍보실적

III. 자체평가 및 종합의견

1. 종합의견
2. 사업운영 과정평가
3. 사업결과 성과평가
4. 건의 사항

붙임 : 사업관련 자료(보고기사, 발간물, 사진 등): 매수 제한 없음.

먼저, 사업 개요는 사업명, 목표, 기간, 대상, 내용 및 규모의 소목차에 따라 보고되고 있는데, 대학별로 보고에 있어 수준 차이가 거의 없는 편이다. 사업 내용의 경우에도 교과목 개요, 주별 강의내용, 강의주제 선정 및 구성 이유, 수강생 명단과 같이 보고 범위 및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는 편이다. 그런데, 대학별로 보고 내용에 있어 다소 차이가 발견되는 것은 사업 추진 결과와 자체평가 및 종합부분이다. 상당수의 대학은 사업 추진 결과와 관련하여 사업 신청 당시 제출하였던 사업 계획서 또는 착수 보고서 그리고 해외현장 활동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항목이나 표를 그

대로 활용하여 간략하게 보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계획 대비 성과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자료에 해당하나,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운영 개선을 위한 환류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사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현장 활동의 경우에는 대학의 역량에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의 편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보고 수준에서도 편차를 보이고 있다. 자체평가 및 종합의견의 경우에는 대학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강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강의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학도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성과 보고는 문서상으로 이루어질 뿐, 별도의 성과 보고회 등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사업성과에 대한 공유 기회가 부족한 편이다. 특히, 종료평가의 평가항목 및 세부 기준에는 결과보고서의 수준과 질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한에 맞춰 행정적으로 제출하고 예산 운용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없다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방식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실제로 사업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이해증진사업을 홍보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2) 개선 방안

개선 방향	사업관리를 위한 책무성 평가에서 탈피하여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선 방안	1) 사업의 기대효과 및 사업 수행기관의 직무역량에 대한 충실한 분석에 근거한 종료평가 영역 및 세부기준의 재설정 2) 각 대학의 여건과 강의 맥락 등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질적 지표의 개발 및 활용 3) 사업 결과보고서 및 종료평가 결과의 환류 체제 구축 4) 외부 평가위원의 참여 확대

사업 운영의 원칙을 사업관리 중심에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환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리고 사업 종료 평가도 사업 운영에 대한 책무성 평가에서 탈피하여 수강생들의 국제개발협력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성과 관리로 전



환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증진사업의 기대효과 및 사업 수행기관의 직무역량에 대한 충실한 분석에 근거하여 종료평가 영역 및 세부기준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해증진사업의 일차적인 목표는 수강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이를 통한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에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관련 분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대학은 행·재정적인 측면에서 운영 및 관리 지침을 얼마나 잘 준수하였는가보다는 사업 목표에 비추어 수강생들의 국제개발협력 및 ODA 분야에 대한 이해 증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성과를 산출하기 위한 사업 수행기관의 전문 역량은 어떠하였는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영역 및 세부기준이 사업의 목표 달성여부를 측정하기에 타당하도록 재설정되어야 하며, 동시에 영역별 배점에 대한 전문적 판단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역별 배점은 사업의 어느 측면을 강조하여 평가하고자 하는지 가치를 담은 일종의 가중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에 근거하여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사업종료 평가영역 및 세부기준 설정에 있어 다른 ODA 사업과 같이 OECD/DAC가 제안한 5대 평가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아래의 <표 V-6>은 OECD의 5대 평가기준을 고려한 종료평가(안)과 이를 기존 평가항목과 비교한 것이다.

〈표 V-6〉 OECD DAC의 5대 기준을 적용한 종료평가(안)

5대 평가기준	주요 질문 (예시)	기존 평가항목
적절성 (Relevance)	개설된 강의가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의 목표, 선정, 계획 실행에 부합하였는가? 개설된 강의는 관련 이해당사자(사업관리자, 교수자, 수강생)의 필요를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모니터링 및 관리(10점) -사업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20점) -커리큘럼 및 강사운영의 적정성(10점)
효율성 (Efficiency)	이해증진사업의 투입 예산 대비 성과가 효율적이었는가? 계획된 시간, 예산 내에서 사업이 종료되었는가? 예산 배분은 적절하였는가?	-계획대비 집행실적 및 결과(10점)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20점)
효과성 (Effectiveness)	이해증진사업의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수강생들은 이해증진사업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대상자 참여도 및 만족도(20점)
영향력 (Impact)	이해증진사업이 수강생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 해당사업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도한 혹은 의도하지 않은 영향은 무엇인가? 이해증진사업으로 인하여 세계시민의식이 함양되었는가? 이해증진사업으로 인하여 ODA 관련 분야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는가?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이해증진사업이 가져온 변화와 긍정적 영향은 학기 이후에도 지속되는가? -이해증진사업의 잠재적 참여자를 확보하고 있는가?	-홍보결과(10점)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종료 평가항목은 주로 적절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OECD DAC가 제시한 5대 평가기준은 특정한 사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라, 일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다(김진희 외 2013). 따라



서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지표 구성이나 적용 정도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교육개발협력사업의 성과 평가에 있어서 효과성과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종료 평가 기준에 대한 재설정이 요구된다.

둘째, 각 대학의 여건과 강의 맥락 등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질적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종료평가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양적 지표 위주로만 평가할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질적 이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입된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이 사업을 통해 기대했던 성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은 여전히 블랙박스로 남게 된다. 즉, 사업에서 기대했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면, 왜 얻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얻을 수 없었다면 왜 얻을 수 없었는지를 사업 수행과 관련된 개별적인 맥락에 근거하여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성과를 달성할 수 없었던 이유가 교육적 문제에 있는지 아니면 교육외적 문제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조화롭게 설정하여 평가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종료평가 시에 평가자가 검토 가능한 다양한 자료를 사업 결과보고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즉,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진행된 사업의 내용을 비교하여 사업의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해외 현장 활동에 대한 충실한 보고, 사업 효과성에 초점을 맞춘 자체 평가 자료, 수강생들의 성찰 일지 및 해외 탐방보고서, 비디오 포트폴리오 자료 등을 통해 사업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향후 사업 운영 개선에 있어 환류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강 이후 ODA 관련 분야에 대한 진로 진출에 대한 추적 조사 자료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사업결과 보고서 목차(안)은 다음 <표 V-7>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V-7> 사업 결과보고서 목차(안)

- I. 사업 개요
 - 1. 사업목표
 - 2. 사업대상
 - 3. 사업내용
 - 가. 교과목 개요
 - 나. 주별 강의내용
- II. 사업 내용 및 운영상의 특징
 - 1. 강의주제 선정 및 교육과정의 구성
 - 2. 외부강사 및 교육환경
 - 3. 수강생
 - 4. 해외현장활동
 - 기간, 방문국가, 방문 목적, 주요 방문기간, 참여자 선발 방식, 프로그램 내용 등
 - 5. 평가 및 모니터링 방법
- III. 주요 성과
 - 1. 강의 개설의 성과
 - 가. 수강생 측면
 - 나. 교수자 측면
 - 다. 대학교 측면
 - 2. 해외현장활동의 성과
 - 가. 수강생 측면
 - 나. 교수자 측면
 - 다. 대학교 측면
 - 3. 홍보 관련 성과
- IV. 사업 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
 - 1. 교·내외 지원 측면
 - 2. 기타 건의 사항
- V. 정산 보고서
 - 1. 예산 집행 개요
 - 2. 집행 현황
 - 가. 월별 예산 집행 내역
 - 나. 지원금 집행 내역
 - 다. 지원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별첨] 기타 증빙 자료

셋째, 종료평가가 사업 종료 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라,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사업 운영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환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료평가 결과를 ODA 교육원의 사업관리자 뿐만 아니라, 사업 책임



교수들에게도 제공하고 향후 사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일례로 종료평가 또는 사업 결과보고서를 통해 매년 사업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발굴된 성공사례는 각 대학의 사업 책임교수들이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에서 이를 공유하고 향후 강의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ODA 교육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특히 해외현장활동의 경우에는 사업 책임 교수들의 사전 경험 및 네트워크, 그리고 소속 대학의 지원 정도에 따라 활동의 폭과 질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우수한 해외현장활동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이 강의를 개설하고 운영해야 하는 교수들에게 주요한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또는 예비 지원 대학)과 수강생들에게도 이해증진사업 및 ODA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료평가 절차를 공정하고 신뢰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관 내부와 외부로부터 평가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부 평가자들이 이해증진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평정자간의 일치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평정자들에 대한 사전 연수 등을 강화해야 한다.

나. 강의평가

1) 개선의 필요성

ODA 교육원(2014)에 의하면 현행 강의평가는 크게 이해증진사업의 수행 방향을 설정하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강의평가는 사업 목표에 따른 강의 운영 현황 및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교수자 또는 사업 주체에게 충실히 피드백 함으로써 향후 더 유의한 효과를 얻기 위한 조언의 목적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강의평가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온 측면이 상당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의평가 참여율이 낮고 대학 자체에서 실시되는 강의평가와 중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앞서 문제 제기한 바와 같이, 수강생들의 강의평가 참여율은 종료평가

기준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자체가 의무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책임교수들이 수강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전반적으로 강의평가 참여율이 낮은 편이다. 그리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강의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ODA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강의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처럼 강의평가 참여가 의무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 참여자 간 편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및 해석의 신뢰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자체 평가 항목과 중복되지 않는 수준에서 강의평가 영역 및 문항을 재구성하여 수강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강의평가는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되기에 다소 부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수강생 기초 정보로서 크게 5가지(설문 일시, 성별, 연령, 직업, 소속 학교명)만을 묻고 있는데, 이는 강의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강의 개선을 위하여 활용함에 있어 기여도가 낮은 정보에 해당한다. 대학 수준에서 개설되는 강의이므로 대부분 20대 대학생일 가능성이 높고, 소속 학교명은 굳이 강의평가를 통하지 않더라도 쉽게 연계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직접적으로 강의 개선을 위하여 활용 가능하고 교육 효과성 파악에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수강생 기초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5문항과 ‘전반적인 만족도’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강의평가 영역은 상당 수 옴니버스 식 강좌로 구성되는 강의 운영 실태 및 만족도 현황을 파악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수강생들은 한 학기 동안 다양한 외부 전문 강사들의 강의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강의 종료 시점에서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총괄평가는 개별 강좌들의 장단점에 주목하지 못하고 평균적이고 전반적인 분위기에 따른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 4문항은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떠한 태도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교육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강의 수강 전 교육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이해도의 기초선(baseline)이 학생마다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강의 종료 시점에서 1회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측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셋째, 강의 평가 대상자가 수강생에게만 제한되어 있어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수렴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본 사업은 수강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직업세계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효과성 평가의 일차적 대상이 수강생이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설정할 수 있는 바, 교육의 장기적이고 비가시적인 속성에 주목하여 사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보다 나은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즉, KOICA로부터 사업 선정 절차를 거쳐 외부 재원을 수주하여 이루어지는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만을 대상으로 강의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강의와 관련된 다양한 맥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KOICA 파견 강사 등 외부 초청 강사뿐만 아니라 강의 전담교수자의 견해를 보다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수집함으로써 향후 강의 개선에 시사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탐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강의 평가 문항이 자기보고식 5점 척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강생들이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무성의한 반응을 보이기 쉽다. 강의 평가가 강의 종료 후 일회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의평가 결과가 수강생들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피드백 되지 않다면 수강생들은 강의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강의 평가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수강생들에게 의미있는 반성적 성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다양화하고 평가 시점 및 횟수 또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 째, 강의 평가 결과의 활용 수준 또한 미비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편이다. 이해 증진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개설 학과가 매년 달라지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의 관리 주체 입장에서 볼 때 강의평가 결과가 사업 선정 등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강의 평가 결과가 향후 강의 개선을 위한 가이드로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강사 사이에도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폴로업, 랩업 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이 약한거 같아요. 강의 끝나면, 선생님들은 강의 하나 때웠다. 담당교수로서는 그걸로 만족하는 거 같구, 거기에 대해서 강의가 어떤 내용이 중복되었고, 다음 강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KOICA 파견강사 A)

또한 면담 결과에 따르면, 많은 대학의 교육과정이 외부 초빙 강사들의 옴니버스 강좌로 구성되고 있지만 강의 내용에 관해서 사업 책임교수와 초빙 강사 간의 사전·사후 협의가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강의평가 결과를 수시로 활용하여 강의의 구성 및 질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개선 방안

개선 방향	강의평가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개선 방안	1) 강의 평가주체의 다면화 2) 강의 평가 횟수의 조정(학기 초와 학기 말 평가 및 형성평가) 3) 다양한 강의 평가 방식의 개발 4) 강의 평가 결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5) 교과목의 질 제고를 위한 강의 평가 결과의 활용

강의평가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대학의 강의는 교수와 학생이 직접 만나 지식을 생산·전수하는 교육의 핵심적 활동에 해당하므로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강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강의평가는 이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제안되고 있다(Danielson et al, 2000). 또한 이해증진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선정된 후 강의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담당교수에게 사업 목표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써의 강의가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그 성과를 어떻게 기대하는지에 대한 사업관리자의 최소한의 요구를 강의평가를 통해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강의 평가를 통하여 현장의 사업운영자(사업 책임교수) 및 수강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강의 개선을 위하여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강의평가의 관리 방안을 평가 주체, 평가시기 및 방법, 평가도구, 결과 활용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주체를 수강생을 포함하여 사업 책임교수 및 외부 초빙강사까지 확장하여 다면화할 필요가 있다. 수강생들은 의무적으로 강의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되, 강의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한 후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지도



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관리자인 KOICA ODA 교육원으로부터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후 비로소 재원 지원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강의이므로, 책임교수 또한 스스로 강의를 평가(혹은 강의 소감지 작성) 하도록 함으로써 강의 운영자의 입장에서 본 성공적인 강의와 그렇지 않은 강의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ODA 교육원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향후 강의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의 특성 상, 옴니버스 강좌로 구성되는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교수자 간 소통의 일환으로써 특강을 제공한 외부 강사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평가 주체를 수강생뿐만 아니라 담당교수, 초빙 강사로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강의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균형 있게 수집하고 향후 강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초와 학기 말의 두 차례에 걸쳐 강의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학기말에 수강 전과 비교하여 인지적·정의적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회고적으로 평가에 임할 경우, 기억에 의하여 왜곡된 반응을 보이기 쉽고 무성의한 응답을 하기 쉽다. 따라서 최소한 두 차례에 걸쳐 자료를 수집한다면 경험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또한 가능해 질 것이다. 그리고 상당수의 강의가 옴니버스 형식의 강좌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학기 말에 일회에 걸쳐 총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 강좌보다는 전반적 강의에 대한 평균적 인식에 기초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기 쉽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강의 구성의 특징을 고려하여 매 강좌를 마칠 때마다 일종의 형성평가로서 외부 강사를 대상으로 한 간략한 강의소감지 작성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소감지는 사업 책임교수 뿐만 아니라 ODA 교육원 차원에서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기보고 외에 강의 평가 방식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자기보고식 5점 척도 중심의 평가 문항을 활용한다면, 그 결과가 대학 간 서열화를 위한 정보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다른 대학의 평가결과와 비교하여 특정 항목에 있어 유의하게 높거나 낮다면 추후 어떤 점에서 성공적이고 실패한 강의인지를 반드시 분석하고, 이를 강의 개선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수강생들이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얼마나 이해도가 높아졌는지에 대한 이론적 역량뿐만 아니라, 실천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상황판단형 평가나 수행

평가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태도나 인식변화와 같은 정의적 영역에 대한 에세이 평가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서술형 문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가장 인상적인 강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강좌 등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공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형성평가의 일환으로써 외부 특강 강사가 참여하는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외부 전문 강사의 관점에서 성공적인 강의 수행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는 서술형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강의평가를 위해 활용되는 평가영역 및 문항은 강의 개선을 위한 목적에서 유의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그리고 해당 사업이 대학수준과 강사수준에서 다양한 맥락 안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강생들이 강의 수강으로 인하여 국제개발협력 및 ODA에 대한 이해도 수준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어떠한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 관련 분야 진로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등과 같은 효과성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예컨대, 학과, 학년, 강의 수강 목적, 관련 분야로의 진로 계획 여부, ODA 관련 선수 학습 이수 여부, 사전 이해도 수준 등 강의 수강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문항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개별 대학 차원에서도 강의 평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ODA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강의평가는 대학 차원에서 실시되는 강의평가와는 차별적으로 이해증진사업 고유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즉, KOICA에서 사업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교육 효과에 대한 명확한 조작적 정의에 기반하여, 이 강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행동 특성이나 인식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ODA 교육원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 목표 및 이에 따른 성취 수준을 보다 체계적이고 질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ODA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강의평가는 사업실시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둔 항목 중심으로 그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되, 학기 말에 대학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된 강의평가 결과 또한 사업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업 책임교수의 교육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보



다는 강의 개선 및 효과성 파악 측면이 강조된 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생님들도 주로 보는 피드백이 강의평가잖아요. 강의평가 항목들이 다 procedure한 거예요. 수업시간 출석 잘 불렀냐 애들 뭘 했냐 숙제 뭐.. 이런 거 말고 콘텐츠에 관한 걸 할 수 있는. 이 과목을 듣고 BEFORE & AFTER 테스트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들어주면. '나는 성과지표를 코이카에서 낸 것 외에 이런 걸 좀 우리 수업시간에 지향한다' 라는 걸 자기가 좀 첨부할 수 있는 공간을 주면.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그 평가를 가지고 BEFORE & AFTER 하고. 졸업한 애들을 아니 수업시간에 고마웠던 애들 6개월 뒤에 팔로업도 한번해보고. (A대학 교수)

한편, 공통 평가항목뿐만 아니라, 강의의 특성 및 규모, 해외현장활동 경험 유무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평가 항목 개발이 필요하다. 예컨대, 강의가 전공으로 개설되는지, 교양으로 개설되는지, 강의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대형 강의인지, 저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강의인지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는 고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강의인지, 사전 이수과목을 요구하는 강의인지, 기초강의인지 심화 강의인지 등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는 영역 및 문항을 차별적으로 개발한다면 강의 특성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강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강의 외에 기관 방문이나 실습 등 활동 중심의 강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강의 평가에서도 그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현장활동에 참여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강의평가가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각 대학의 교육과정은 강의 수강자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수강생 중 일부 학생만 경험하게 되는 해외현장활동이 국제개발협력 이해도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해외현장활동에 대한 평가는 사업 책임교수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고의 수준도 대학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수 있다. 따라서 강의평가를 공통문항과 선택형 문항으로 나누어 평가영역 및 문항을 개발하고 목적에 맞게 재편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강의평가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를 근거로 하여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고유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강의평가의 영역(안)을 주체별로 제안하면 다음의 <표 V-8>과 같다.

〈표 V-8〉 주체별 강의평가 영역(안)

평가 주체	평가 영역	하위 영역	세부 내용	비고
수강생	응답자 특성	일반적 특성	학과, 학년	
		국제개발협력 관련 특성	강의 수강 목적, 관련 분야로의 진로 계획 여부, 국제개발협력 관련 선수 학습 이수 여부, 사전 이해도 수준, 개발도상국 방문 경험 여부	
	개발교육 효능감	이론적 역량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	
		실천적 역량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흥미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계획·조직력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대한 실행력	
	개발교육에 대한 요구	주제별 학습 필요성	문화, 환경, 인간 권리, 세계 평화, 사회경제, 정치, 여성 등의 주제별 강좌 필요성 인식 수준	개설 강의 특성에 따른 선택적 문항 개발 필요
		강의 난이도	국제개발협력 관련 특강 및 강좌의 난이도에 대한 만족도	
		강사의 전문성	강사의 전문성, 강사의 교수능력	
		전공 및 진로와의 관련성	강좌 내용이 전공 및 향후 진로 간 연계성	
		홍보 활동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홍보 활동 수준	
		해외현장활동	방문국, 현장 활동, 사전 교육의 필요성, 선발 방식 등	
	기타 건의사항(자유기술)			



평가 주체	평가 영역	하위 영역	세부 내용	비고
책임교수	응답자 특성	일반적 특성	전공분야, 소속분야	
		국제개발협력 관련 특성	강의 개설 목적, 관련 분야 교육 및 연구 경험, 개발도상국 방문 경험	
	개발교육 교수 효능감	이론적 역량	개발교육 관련 이론적 지식의 정확성, 충분성, 최신성	
		실천적 역량	개발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적합성	자유 기술하도록 하되, 장기적으로는 ODA, 분야 전문가 Pool 구축 및 전문가 협의체 채널 구축의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능함
			개발교육 커리큘럼 구성의 체계성	
			개발교육 관련 자료 구성 및 개발 능력	
			개발교육 관련 과제 및 피드백 부여의 적절성	
			개발교육 관련 수강생 참여 독려의 적절성	
			해외현장활동 계획 및 실행능력	
	개발교육에 대한 요구	주제별 교육 필요 인식	문화, 환경, 인간 권리, 세계 평화, 사회경제, 정치, 여성 등의 주제별 필요성 인식 수준	개설 강의 특성에 따른 선택적 문항 개발 필요
		강의 난이도	국제개발협력 관련 특강 및 강좌의 난이도에 대한 만족도	
		해외현장활동	방문국, 현장 활동, 사전 교육의 필요성, 선발 방식 등	
		홍보 활동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홍보 활동	
	기타 건의 사항 (자유기술)			
외부강사	간략한 강의소감지 (자유기술)			

참고로, 강의 중에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개별대학 차원에서 실시된 강의평가 내용을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대학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강의평가의 영역 및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 V-9>와 같다.

<표 V-9> 대학별 자체 강의평가 영역(안)

요인	평가 영역	세부 내용
학생 요인	학생정보 및 자기평가	학습시간, 예상 학점, 학습 참여도, 수강동기
교수자 요인	기본 문항	강의계획의 체계성, 담당교수의 지식과 경험, 강의 내용, 교수방법, 학생과의 상호작용, 수업난이도, 교재의 적절성, 평가방식의 공정성, 과제의 유의미성, 강의 성과
	대학 특성화 문항	조교 지원 및 활용 여부, Office hour와 tutoring 활용 여부, 이러닝 활용여부

출처: 이희원, 민혜리(2013). p.270 재인용.

다섯 째, 강의평가 결과는 대학 간 상대비교를 위한 서열화 자료가 아니라, 강의가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향후 강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 강의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강의의 질 개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 부담은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강의 질 개선을 위한 정보를 책임교수에게 전달하거나 피드백하기 위한 용도로 체계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강의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대학의 경우 강의평가를 담은 핸드북을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강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수강신청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이희원, 민혜리 2013). 이해증진사업의 수강생들은 강의계획서의 제한된 정보만을 가지고 강의 수강을 결정한다. 그러나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수강생들에게 교과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국제개발협력이나 ODA에 보다 적극적인 탐색을 요하는 수강생들의 강의



수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 차원에서도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리적·재정적 영역을 확인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교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활용할 수 있다.

VI

요약 및 결론

—

—

—



Ⅵ.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09년부터 시작된 대학교 이해증진사업의 운영 현황과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성공사례들의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우선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사업 현황 자료, 사업계획서, 수강생 강의만족도 평가 결과, 대학정보공시자료 등의 자료를 토대로 이해증진사업의 성과를 다각도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해증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학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수강생, 책임교수, 강사, 사업관리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에서 성공요인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해증진사업의 직접 수혜자인 수강생들이 이해증진사업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 및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이해증진사업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함으로써 현행 사업의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이해증진사업은 네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 첫째, 고등교육 수준의 개발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지역 간 교육기회 격차 감소에 기여하였다. 대학생들의 개발교육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였지만 이를 강좌에서 다루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지방대학에는 교육기회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 대학생들의 개발교육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었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학생의 인지도 및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국제개발협력 및 ODA에 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았으나, 이 과목 수강을 통해 인지 및 이해, 태도 변화, 그리고 작은 실천까지 이어졌다. 셋째,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진로 의식 변화에 기여하였다. 수강생들은 수강 후 자신들의 진로에 있어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몇몇 학생들은 이 분야에 대한 진로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선회하는 등 본 교과목은 학생들이 합리적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넷째,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의 질 제고에 기여하였다. 이 사업의 행·재정적인 지원으로 국제개

발협력 이해 과목이 보다 높은 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 대학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교양 강좌에서 다양한 외부 강사를 초빙하고 수강생 일부에게 해외현장활동의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해증진사업의 성공요인을 실제 사례로부터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대학의 책임 교수들은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의 이해라는 기본 목적에 충실하였고, 학생들 또한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둘째, 이러한 강의 목적에 대한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성공사례들은 학생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책임 교수 스스로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사, 해외현장활동 등을 활용하여 직업분야에 대한 정보 또한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본 교과목의 수업이나 과제가 해외현장활동과 연계성이 높아 학생들이 해당 국가를 방문 전에 학습할 수 있었으며, KOICA의 현장사무소 연락 등은 책임교수가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외현장활동 참여자는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뽑았으며, 참여 학생들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직접 다음 학기에 발표의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셋째, 이해증진사업의 성공 사례들은 우수한 성과 관리를 통해 다음 학기 혹은 다음 연도에 개설되는 강의를 개선하고, 그 성과를 보고서·사진전·동영상·발표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공 요인을 토대로 이해증진사업을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이해증진사업의 목표를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이를 통한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의 양적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의 목적을 명료화하고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 선정 심사 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구성의 적합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해증진사업으로서 예산 확대 및 전담인력 충원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의 문제는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대학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국제개발협력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책임 교수의 역량에 따라 교육 내용의 질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KOICA ODA교육원과 전문가들이 기본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든 대학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해외현장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한다. 현재의 사업 운영은 프로그램의 결과 평가보다는 계획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이를 조정하고, 획일적인 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보다 교육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사업관리를 위한 책무성 평가에서 탈피하



여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의평가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목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해증진사업의 기본 목적은 대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 이해지만, 현재의 사업 및 강의 평가 체계는 사업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이해증진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증진 교육의 효과가 해마다 향상될 수 있도록 선순환적인 평가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3). 제 1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자료(2013. 8. 2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권율, 김한성, 박복영, 황주성, 홍수연(2006).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 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율, 박수경, 이주영(2011).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및 국제 비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경성, 김수동, 정선영(2008).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양적·질적 평가
지표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명량, 윤우영, 김복기(2008). 한국공학교육 인증의 프로그램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모형 개발. 교육공학연구, 11(2), 42-49.
- 김성훈, 김신영, 서민원, 양길석, 권효진, 서영인(2009). 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메타평가 기준 개발. 서울: 대학교육협의회.
- 김안나(2012). 고등교육사회학. 서울: 학지사.
- 김영환, 김선영, 정지연(2012). 공적개발원조와 개발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연구. 교사교육연구 51(3), 423-439.
- 김은미, 김지영, 이재은(2011). 한국 ODA에 대한 국민인지 제고 전략. 경기:
한국국제협력단.
- 김주연(2012). 한국 보건의료 ODA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 보건의료인력
양성방안 제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장혜승, 박환보, 박주형, 김새봄, 하연섭, 김철희(2013). 한국의
교육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 모형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철희(2011). 국제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철희, 백성준, 최동선, 김상태, 유성상(2010).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전략Ⅱ: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철희, 최동선(2010).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관리자 직무분석.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혜숙, 백순근(2009). 이해당사자 기반의 u-러닝 연구학교 프로그램 평가 연구.
교육평가연구, 22(2), 343-368.

- 박기문, 최유현(2011). 공학 인재개발을 위한 공학교육프로그램 평가모형의 설계 연구, 11(1). 한국기술교육학회.
- 박환보(2013). 일본의 대학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연구. 비교교육연구 23(1), 25-44.
- 백순근 · 신호정(2008). 위계선형모형을 활용한 대학생의 강의평가 분석-S대학교 교양강의를 중심으로 : 위계선형모형을 활용한 대학생의 강의평가 분석. 교육평가연구 21(2), 1-24.
- 신상협, 박수연, 이지연(2013). 개발교육의 현황분석 및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과 영국의 개발교육 현황 · 정책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31(3), 29-49.
- 신선미, 정경아, 구정화(2008). 여대생의 직업세계 인식 실태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유한구, 김양현, 송광용(1994). 교육대학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논문집 24, 195-318.
- 윤명희, 신현순, 서희정(2010). 대학생의 직업세계 인식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29(4), 305-327.
- 윤명희, 임현성(2008).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평가도구 개발. 교육평가연구 21(4), 1-19.
- 윤종혁, 이석희, 박환보, 김정희, 김이경, 최동주, 손희권(2013). 글로벌 교육협력연구 · 사업의 중장기 비전 및 계획 수립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미지(2013). 한국의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ODA)에서의 교사 활용 방안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희, 최명선, 박희현(2009). 대학생들을 위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인간발달연구 16(2), 205-220.
- 이지향, 이유진(2014). 대학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한국개발협력학회 2013년 동계학술대회. 12월 6일. 서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이태주, 김다원(2010). 지리교육에서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개발교육의 방향. 대한지리학회지 45(2), 293-317.
- 이희원, 민혜리(2013). 수업 개선을 위한 강의평가 결과 활용 방안 탐색-S대학의 강의 평가 결과 피드백 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 열린교육연구, 21(3), 257-283.
- 정봉근, 박환보(2013). 일본 교육ODA 거버넌스의 특징과 시사점. 국제개발협력연구 5(2), 131-159.



- 정봉근, 장은정(2013). 한국 대학의 공직개발원조 참여 분석 연구: 지방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
- 정연순, 장서영, 김균(2008). 취업지원 프로그램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조발그니(2012). 지방사립대학교 간호학과 여학생들의 직업인식. 직업능력개발연구 15(1), 103-127.
- 최민경(2008).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최상덕, 김기수, 장수명, 채재은, 정규열(2008).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특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정윤, 김진희, 박환보, 박주형, 유성상, 조우진, 김태균(2014). Post-EFA 세계교육회의 의제 개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종철, 김영화(2007) 성인학습자 관점을 반영한 사이버대학 교육프로그램 평가준거 연구. 평생교육연구, 13(3), 187-213.
-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교육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KOICA ODA 교육원(2012). 2012년도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성과사례집. 성남: KOICA ODA 교육원.
- KOICA ODA 교육원(2014). 2014년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가이드라인. 성남: KOICA ODA 교육원.
- Brinkerhoff(2003). Telling training's story. San Francisco: Berrett-Koehler.
- Brinkerhoff(2005). The success case method: A strategic evaluation approach to increasing the value and effect of training,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7(1), 86-101.
- Brinkerhoff(2008). Training impact evaluation that senior managers believe and use. TU 320, ASTD 2008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Exposition, Dallas, TX: ASTD.
- Danielson, C., & McGreal, T. L. (2000). Teacher evaluation : To enhance professional practice. Association for Supervision & Curriculum Development.
- OECD(1991). DAC Principles for evalu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KOICA ODA 교육원 홈페이지
(<http://idea.koica.go.kr/course/CourseListPartner.do>)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41952901>

〈부록 1〉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면담조사 질문지(교수용)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면담조사 질문지 [교수용]

1.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강의에 대한 인식

-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강의를 통해서 수강생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 귀하께서는 강의의 내용을 구성할 때, 어떠한 측면에 주안점을 두셨습니까?
- (추가 질문) KOICA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의 목적을 1) 이해도 제고 2) 진로 탐색 기회 제공 3) 전문 인력 양성 3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 이러한 기본방향 및 취지에 동의하십니까?
 - ▶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위 세 가지 목적 중에서 어떠한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하셨습니까?

2.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강의의 준비

- 귀하께서는 강의를 담당한 계기가 무엇입니까?
- 귀하께서는 강의수행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교재개발, 수요조사 등)

- 강의준비 과정에서 사업관리자 또는 강사와 내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있었습니까?

3.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강의의 수행

- 본인이 담당한 강의는 어떤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께서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아쉽거나 어려웠습니까?
 - ▶ 사업 관리자 등에게 문의나 항의 연락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 있으시다면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 다음 항목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 수업의 정원 ▶ 평가 기준 및 방법 ▶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 교수법(수업 진행 방식) ▶ 강의 교재 및 자료 ▶ 강사 파견
---	--

4.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 사업의 예산 규모(3000만원)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였습니까?
 - ▶ 예산의 투입 대비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현행 사업 공모 및 선정 방식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행 해외현장활동의 운영 방식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밖에, 본인이 생각하는 사업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향후 발전방향

- 다시 강의를 담당하신다면 어떻게 강의를 운영하고 싶으십니까?

- 기타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에 바라는 바를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록 2>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면담조사 질문지(학생용)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면담조사 질문지 [학생용]

1.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교과목의 강의 목적과 성과에 대한 인식

-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교과목 수강신청 동기는 무엇입니까?
 - 교육과정에 대한 흥미
 - 학점취득의 용이성
 - 해외현장학습 참여
 - 지인추천
 - 국제개발협력분야로 진로 설정
 - KOICA, NGO 및 외부 전문 강사와의 교류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경우, 어떠한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 국제개발협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수업을 들으셨습니까?
- 이 과목을 수강한 후,
 - 1) 무엇을 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 2) 어떤 측면에서 태도와 사고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3)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교과목의 강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의의 목적으로서 다음 항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수강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 증진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우리나라의) ODA 필요성 및 중요성
 - 2)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진로탐색 기회제공
 - KOICA, NGO, 국제기구 인턴 및 취업 관련 정보
 - 국제개발협력 관련 전공으로 진학에 관한 정보
 - 3)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문가 양성
 -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최신 쟁점들에 대한 이해 및 사고

- 특정 분야 혹은 지역에 대한 심화 학습
- 본인 전공과의 연계

2.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강의 운영

- 과목 수강 과정에서 특별하거나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과목 수강 과정에서 아쉽거나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강의는 학기 초에 안내된 강의계획에 따라서 진행되었습니까? 변화가 있었다면, 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더 적절한 내용과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까?
- 파견된 강사 특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제개발협력 이해 증진, 진로탐색, 심화 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담당 교수 혹은 파견 강사 사이의 내용 중복문제는 없으셨습니까?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측면의 이론 강의와 진로탐색 강의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 항목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 수업의 정원
 - 평가 기준 및 방법
 - 강의 교재 및 자료
 - 강의의 난이도
 - 교수법(수업 진행 방식)
 -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 피드백
 - 강의실 및 기자재 등의 강의 환경
 - 강의평가 문항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의 운영은 강의목적(이해증진, 진로탐색, 전문가 양성)을 달성하기에 어떤 점에서 적절하였습니까? 그리고 어떤 점에서 아쉬웠습니까?

3. 해외현장활동 참여

- 해외현장활동 선발 기준은 무엇이었고 선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 현행 해외현장활동 참여학생 선발방식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외현장활동 전 사전교육을 받으셨습니까?
- 해외현장활동 시 일정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되었습니까? 제공이 되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되었습니까?

- 해외현장활동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경험이 없다면,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 (참여자) 해외현장활동 참여 과정에서 좋았던 점,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 (참여자) 보다 나은 해외현장활동을 위해서 어떠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여자) 해외현장활동 참여는 강의목적(이해증진, 진로탐색, 전문가 양성)을 달성하기에 어떤 점에서 적절하였습니까? 그리고 어떤 점에서 아쉬웠습니까?
- 해외현장활동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외현장활동을 다녀온 학생들이 다른 수강생들에게 피드백을 하였습니까?

4. 기타

- 본인이 수강한 과목을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유사한 과목이 개설된다면 다시 수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향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점수로 환산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2013년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과목 수강과 지난 6개월 ~ 1년간의 변화
- 2013년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과목 수강과 앞으로 진로 및 진학 계획
- 기타 자유 의견

〈부록 3〉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면담조사 질문지(강사용)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면담조사 질문지 [강사용]

1.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강의에 대한 인식

-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강의를 통해서 수강생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 귀하께서는 강의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측면에 주안점을 두셨습니까?
- (추가 질문) KOICA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의 목적을 1) 이해도 제고 2) 진로 탐색 기회 제공 3) 전문 인력 양성 3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 이러한 기본방향 및 취지에 동의하십니까?
 - ▶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귀하께서는 위 세 가지 목적 중에서 어떠한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하셨습니까?

2.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강의의 준비

- 귀하께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강의를 담당하게 되었습니까?
- 강의 요청을 받으셨다면, 귀하께서 강의 요청을 수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귀하께서는 강의 수행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교재개발, 수요조사 등)
-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관리자 또는 책임자와 내용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3.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강의의 수행

- 본인이 담당한 강의는 어떤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귀하께서 국제개발협력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아쉽거나 어려웠습니까?
 - ▶ 사업 책임자 및 관리자 등에게 문의나 항의 연락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 있으시다면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 다음 항목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 수업의 정원
 - 교수법(수업 진행 방식)
 - 평가 기준 및 방법
 - 강의 교재 및 자료
 -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 강사 파견

4. 향후 발전방향

- 다시 강의 요청을 받으신다면 어떠한 내용의 강의를 하고 싶으십니까?
- 기타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에 바라는 바를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자료 ODA교육 2014-01-210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종합평가 연구

발행 2014년 11월
발행인 김 영 목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편집인 ODA교육원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18(우:461-833)
전화 031) 740-0307
팩스 031) 740-0681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쇄 (주)서보미디어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6469-261-5 93320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종합평가연구

2014. 11.



KOICA

461-8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Tel. 031-740-0114 Fax. 031-740-0655
한국국제협력단 <http://koica.go.kr>